

**O'ZBEKISTON RESPUBLIKASI OLIY VA O'RTA MAXSUS TA'LIM  
VAZIRLIGI  
TOSHKENT DAVLAT SHARQSHUNOSLIK INSTITUTI**

**KIM PHIL**

**KIM V., KIM E., SAYDAZIMOVA U., SHAKIROVA N.**

# **K O R E Y S   T I L I - 3**

**O'quv qo'llanma**



**O'ZBEKISTON RESPUBLIKASI OLIY VA O'RTA MAXSUS TA'LIM  
VAZIRLIGI  
TOSHKENT DAVLAT SHARQSHUNOSLIK INSTITUTI**

**KIM FIL**

**KIM V., KIM E., SAYDAZIMOVA U., SHAKIROVA N.**

# **K O R E Y S T I L I - 3**

**O'quv qo'llanma bakalavriat yonalishida:  
5220100-sharq filologiyasi(koreys tili)**

## **Toshkent - 2010**

Kim Fil, Kim V., Kim E., Saydazimova U., Shakirova N.

Koreys tili-3. O'quv qo'llanma

Ushbu koreys tili darsligi o'zbek guruhi uchun tayyorlangan uchinchi kitobdir bo'lib u 36 soat darsga mo'ljallangan (18 hafta 2 soatdan).

Darslik o'zida 20 darsni mujassamlashtirgan bo'lib har bir dars yangi matn, yangi so'zlar, tallafuz, grammatika leksika va mashqlardan iborat.

Matnlarning asosi dialogdan tashkil topgan bo'lib unda o'sha darsning grammatikasi va leksikasi mujassamdir. Darslikning umumiy leksikasi tahminan 800 so'zdan iborat.

Toshkent Davlat Sharqshunoslik Instituti O'quv – uslubiy Kengashning 2010 yil 4 apreldagi 2 – sonli Majlisi qarori bilan nashrga tavsiya etiladi.

### **Annotatsiya**

Ushbu o'quv qo'llanma o'zbek guruhi uchun tayyorlangan uchinchi kitobi bo'lib, u 36 soat darsga mo'ljallangan (18 hafta 2 soatdan).

O'quv qo'llanma 20 darsdan iborat bo'lib, har bir dars yangi matn, yangi so'zlar, tallafuz, grammatika,leksika va mashqlarni o'z ichiga oladi.

Bu o'quv qo'llanma o'rta bilimni oshirish uchun mo'ljallanib, unda tarix va madaniyat to'grisida matnlarni ham ko'rishimiz mumkin. Bu talabalarga yanada tilni chuqurroq o'rganishga imkon beradi.

O'quv qo'llanmaga asos qilib, Seul Universitetining kitobidan foydalandik. Matnlarning asosi dialogdan tashkil topgan bo'lib, unda darsning grammatika va leksikani o'z ichiga oladi. Bu o'quv qo'llanmaning yangiligi shundaki, yangi bo'lim kirgizdik, ya'ni “Koreya madaniyati “ deb nomlanadi. Unda talaba qiziqarli ma'lumotni bilib olishi mumkin. Darslikning umumiy leksikasi tahminan 800 so'zga to'g'ri keladi.

## 차례

- 1과 방학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 2과 상을 두 개나 받았는지요?
- 3과 일기 예보에서 뭐라고 했어요?
- 4과 우리 오후에 문형 갈까요?
- 5과 방 값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 6과 하숙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예요
- 7과 서울에서 집 사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 8과 차 소리가 들려서 시끄러워요
- 9과 언제든지 예금하고 찾을 수 있지요
- 10과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
- 11과 같이 저녁이라도 하는 게 어때?
- 12과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요
- 13과 불고기를 만들면 이런 재료가 필요해요
- 14과 불고기 맛은 양념에 달려 있어요

15과 부동산에다 물어 보세요

16과 지금 입고 있는 그 바지는 어때요?

17과 조카는 뭘 먹이죠?

18과 표를 사 놓지 않으면 고향에 갈 생각도 못해요

19과 집에서 송편이나 만들까 해요

20과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 Mundarija

1-dars. Ta'tilning bunchalik tez tugaganligi haqida bilmagan edim.

2-dars. Aytishdiki: "Mukofotni ikki martalab oldingmi?"

3-dars. Ob-havo ma'lumotida nima deyishdi?

4-dars. Biz tushlikdan so'ng bemorni ko'rishga boramizmi?

5-dars. Xona narxini qanchaga boxolaysiz?

6-dars. Pansionat hayotiga ko'nika olishimdan havotirlanyapman

7-dars. Seulda uy sotib olish, osmondagi yulduzni uzib olish bilan teng.

8-dars. Mashinaning ovozi eshtilganligi uchun shovqin.

9-dars. Har doim omonatni qo'ya olasiz va qaytarib olasizmi?

10-dars. Qanchalik qidirmang, baribir ko'rinmaydi.

11-dars. Kechki ovqatni birga qilsak, nima deb o'ylaysiz?

12-dars. Radio orqali e'lon eshiritish.

13-dars. Pulkogini tayyorlash uchun quyidagi mahsulotlar kerak bo'ladi.

14-dars. Pulkogining mazasi ziravorlarga bog'liq.

15-dars. Uy-joy agentligidan so'rab ko'ring.

16-dars. Hozir kiyib ko'rgan shimim yarashdimi?

17-dars. Jiyaninga biror narsa yedirsangchi?

18-dars. Agar chiptani sotib ololmasam, vatanimga borish haqida o'ylamasam ham bo'ladi.

19-dars. Uyda Song pyong tayyorlasammi deb o'ylayapman.

20-dars. Uzoq kuttirganim uchun uzr.

## 1 과 방학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바르너: 오래간만이에요, 안바르 씨. 방학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안바르: 여행을 좀 갔다 왔어요. 그런데 방학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바르너: 그래요. 방학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방학 동안에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안바르: 참, 2 급반 친구들은 모두 3 급반으로 올라갔나요?

바르너: 쇼후루흐 씨만 빼고 모두 진급했어요.

안바르: 쇼후루흐 씨는 어떻게 됐는데요?

바르너: 사정이 있어서 파리로 돌아갔다고 해요.

## 새 단어 Yangi so'zlar

—(으)르 줄 몰랐다 —ni bilmagan edim	귀국(하다)- vatanga qaytmoq
참 – ha aytganicha	전공 --mutaxassislik
빼다 –dan tashqari	경제학 - iqtisod fakulteti
진급(하다)- guruhdan guruhga o'tmoq	경영학- menedjment fakulteti
사정 -sharoit, vaziyat	정문- bosh darvoza
—(으)르 줄 알았다—ni bilmoq	본문- boshlang'ich matn
편리하다 - qulay	국적- fuqarolik
똑똑하다- aqlli	직업- kasb
오랜만에-uzoq vaqt davomida	앞으로 -kelajakda
고추장- maydalangan qizil garimdorili	
soya pastasi	
갑자기 -birdaniga	

## 문법 Grammatika

1) AV— (으)ㄴ/는/(으)ㄹ 출 몰랐다 [알았다] — sifat, fe'l + ni bilmaslik

[bilmoq]

지하철이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줄 몰랐어요.

김 선생님이 미국에 가신 줄 몰랐어요. 영국에 가신 줄 알았어요.

2) 참, S — ha aytgancha.

참,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잊어버렸군요.

참, 제가 어제 준 편지 부쳤어요? — 아이고, 미안해요. 아직 못 부쳤어요.

\* 나는 이 그림 참 좋아해요.

3) N을/를 빼다 – ot + dan tashqari, -ni hisobga olmaganda

고추장을 빼고 주세요. 매운 것을 잘 못 먹으니까요.

50,000원에서 34,700원을 빼면 얼마지요?

### 어휘와 표현 So'z va ifoda

1) 사정이 있다 sharoit sababli, shoshilinch vaziyat

저는 사정이 있어서 먼저 가겠어요.

사정이 있는 학생은 선생님께 말씀 드리고 일찍 가도 괜찮아요.

## 연습1 Mashq

1) 한국어 공부 / 재미있다

가: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지요?

나: 네,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1) 제주도 경치 / 아름답다

4) 서울 교통 / 복잡하다

2) 지하철 / 편리하다

5) 한국 음식 / .....

3) 단어 외우기 / 힘들다

6) ..... / .....

2) 늦다, 오다 / 버스, 빨리 출발하다

가: 왜 늦게 왔어요?

나: 버스가 이렇게 빨리 출발할 줄 몰랐어요.

1) 조금, 먹다 / 매우탕, 맵다

3) 일찍, 오다 / 시간, 조금

2) 전공, 바꾸다 / 경제학,

걸리다

어렵다

4) 시험, 못 보다 / .....

5) 고추장, 빼다 / .....

6) ..... / .....

3) 오늘, 현호 씨 생일 / 다음 주

가: 오늘이 현호 씨 생일이예요.

나: 그래요? 오늘이 현호 씨 생일인 줄 몰랐어요. 다음 주인 줄 알았어요.

1) 선미 씨 전공, 경제학 / 경영학

2) 저 곳, 지하철역 입구 / 지하도 입구

3) 423 번,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버스 / 정문까지만 오는 버스

4) 철수 씨, 태권도 선수 / .....

5) 저 건물, 도서관 / .....

6) ..... / .....

## 연습 2 Mashq 2

1) 본문은 잘 읽고 대답하세요. Matnni o'qib savollarga javob bering.

1) 안바르는 방학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2) 바르너는 방학 동안에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습니까?

3) 2급반 친구들은 모두 3급반으로 진급했습니까?

4) 쇼후루흐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 자기 소개를 해 봅시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다.

Keling o'zimizni tanishtiraylik, hamda do'stlar bilan tanishaylik.

이름	국적	전공 / 직업	주소 / 연락처	전화 번호

3) 친구들의 생활과 생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다.

Do'stlaringizning hayoti va fikrlari to'g'risida yaxshiroq bilib olaylik.

이름				
질문				
언제 한국에 왔어요?				
왜 한국어를 공부하세요?				
취미가 뭐예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	--	--	--	--

1) 다음 보기와 같이 친구에게 자기 고향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아름답다’ 를 넣어 나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

Quyidagi namunaga qarab do'stingizga o'zingizning vataningiz haqida so'zlab bering. Do'stingizning hikoyasini eshitib ‘아름답다’ grammatikasini qo'llagan holda o'z fikrimizni bildiraylik.

친구: 제 고향은 일본 오키나와예요.  
 오키나와는 섬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어요.  
 나: 그래요? 오키나와가 섬인 줄 몰랐어요.  
 친구: 그리고 오키나와에는 맛있는 과일이 많이 있어요.  
 나: 네, 그렇군요. 오키나와에 맛있는 과일이 많은 줄 몰랐어요.

친구 이름	고향	고향에 대한 소개
다나카	일본 오키나와	섬, 아름다운 바다, 맛있는 과일

--	--	--

2)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Dialog tuzing.

1) 가: 친구들이 모두 3급으로 진급했어요?

나: ..... 만 빼고 모두.....

가: .....은/는 왜 진급하지 않았어요?

나: 사정이 있어서 .....다고 해요.

2) 가: 모두 식사했지요?

나: .....만 빼고 모두 식사했어요.

가: .....은/는 왜 .....?

나: 바빠서 .....다고 해요.

3) 가: 숙제 다 했어요?

나: 일기 쓰기만 빼고.....

가: .....은/는 왜.....?

나: .....서.....요.

4) 가: 한국의 유명한 산에 가 본 적이 있어요?

나: ..... 만 빼고 .....

가:.....은/는 왜 .....?

나:.....서.....요.

## 속담과 관용어

### 몸과 관련된 관용 표현

한국어에는 신체와 관련된 관용 표현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얼굴의 여러 기관과 관련된 표현이 많다.

‘눈이 높다’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높다는 뜻이다. 눈이 높은 사람은 물건을 살 때 품질이 좋은 것만 산다. 또 결혼 상대를 고를 때도 여러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스러운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눈이 높은 사람 중에는 노처녀, 노총각이 많다고 한다.

‘입이 무겁다’는 말이 없고 비밀을 잘 지킨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입이 무거운 사람은 남의 비밀을 알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믿음직스럽고 성격이 좋다는 칭찬을 듣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가 많다.

‘콧대가 세다’는 자존심이 세서 다른 사람에게 굽히기 싫어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고, ‘귀가 얇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어서 쉽게 속는 사람에게 쓴다.

‘손이 크다’는 어떤 일을 큰 규모로 한다는 뜻이다. 음식을 만들 때 먹고 남을 만큼 많이 하는 사람, 큰돈을 쉽게 잘 쓰는 사람은 손이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시원스럽다는 칭찬을 듣기도 하지만 일의 규모를 조절하지 못 해서 곤란을 겪기도 한다.

또 ‘발이 넓다’는 아는 사람이 많을 때 쓰는데, 발이 넓은 사람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일을 할 때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2 과 상을 두 개나 받았지요?

**현호** : 세바라 씨, 지난 번 수료식에서 상을 두 개나 받았지요?

축하해요.

세바라 : 고마워요. 그런데 현호 씨는 왜 수료식에 안 왔어요?

현호 : 시험이 끝나고 바로 고향에 가느라고 참석하지 못했어요.

세바라 : 그랬군요. 저는 현호 씨가 수료식에 올 줄 알았어요.

현호 : 나도 꼭 참석하려고 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집에 갔다 왔어요.

세바라 : 수료식 끝나고 친구들이 우리 집에 모여서 늦게까지 놀았어요.

현호 : 그랬군요. 늦었지만 축하하는 뜻으로 오늘 제가 저녁을 살게요.

세바라 : 정말요? 고마워요. 어디서 만날까요?

현호 : 저녁 6 시에 학교 정문에서 만나요.

## 새 단어 Yangi so'zlar

상- mukofot

—다지요?- shunaqami?

수료식- bitirish kechasi

—느라고 -ligi uchun

꼭- albatta

참석(하다) -qatnashmoq

모이다- yig'ilmoq

타다 (상을)- (mukofot) olmoq

우등상 - mukofot(namunali o'qigani  
uchun)

개근상-muntazamlik bilan chin

ko'ngildan qilingan mehnat uchun  
mukofot

월급- oylik

이상-ko'proq, yuqori

동남아- janubi-sharqiy

이사 (하다)- ko'chmoq

곧 -darrov

어젯밤- kecha kechasi

졸업 (하다)- bitirmoq

수고 (하다)- biror narsa ustida mehnat  
qilmoq

졸업식- bitiruv bazmi

결혼식- to'y bazmi

회의 -majlis, yig'ilish

입학 (하다)- kirmoq (o'qishga)

사과 (하다)- kechirim so'ramoq

초급-boshlang'ich daraja

발표 (하다)- ma'ruza qilmoq

중급- o'rta daraja

철학- falsafa

수업료- o'qish uchun to'lov

대화 -dialog, suhbat

## 문법 Grammatika

### 1) AV —다지요? —sifat, fe'l + deb aytishyaptiku?

3급 이상만 한자반을 신청할 수 있대지요? — 네, 그렇다고 해요.

설악산에는 벌써 눈이 많이 왔대지요? — 네, 그렇다고 해요.

\* 그 분은 자기 나라로 곧 돌아간다고 하지요?

제주도는 경치가 아름답다고 하지요?

### N (이)라지요? – ot + deb aytishyaptiku?

저분이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라지요? – 네,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내일이 쉬는 날이지요? — 그래요? 쉬는 날인 줄 몰랐는데요.

### 2) V — 느라(고) —fe'l + ligi uchun

어젯밤에 책을 읽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숙제를 하느라고 주말에 쉬지 못 했어요.

### 3) 을 / 를 축하한 뜻으로 — tabriklash ma'nosida

졸업을 축하한 뜻으로 내가 저녁을 살게요.

입학을 축하한 뜻으로 동생에게 가방을 사 주려고 합니다.

A/V -(으) L/는 것을 축하 [사과, 감사] 하는 뜻으로 -sifat, fe'l +  
tabriklash [uzr so'rash, minnatdorchilik] ma'nosida

#### 4) N에 참석하다 - ot + da qatnashmoq

동생 졸업식에 참석하느라고 회사에 늦게 갔어요.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느라고 지연 씨 생일 파티에 못 갔어요.

### 어휘와 표현 So'z va ifoda

#### 1) 상(을) 받다 [타다]- mukofot olmoq

바바라는 공부를 자라서 우등상을 받았어요.

나는 한 번도 결석을 안 해서 개근상을 탔어요.

#### 월급(을) 받다 [타다]- oylik olmoq

준영씨가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는 줄 몰랐어요.

지난 주에 월급을 탔는데 벌써 다 써 버렸어요.

### 연습1 Mashq 1

1.

학교, 늦다/ 늦잠 자다

가 : 왜 학교에 늦었어요?

나 : 늦잠 자느라고 늦었어요.

1) 청소, 못 하다 / 시험 공부를 하다

4) 대답, 못 하다 / 다른 생각을

2) 어젯밤, 못 자다 / 컴퓨터 게임을

하다

하다

5) 내 생일, 안 오다 / .....

3) 집, 늦게 들어오다 / 친구와 놀다

6) ..... / .....

2)

영수씨, 바쁘다 / 한국어 공부하다

가 : 요즘 영숙 씨가 바쁘다지요?

나 : 네, 한국어 공부하느라고 바쁘다고 해요.

1) 철수 씨, 힘들다 / 시험 준비하다

2) 안나 씨, 이번에는 등록을 못 하다 / 고향에 돌아가다

3) 준영 씨, 지난 주말에 바쁘다 / 이사하다

4) 소노코 씨, 일을 다 못 끝내다 / .....

5) 다나카 씨, 발표 준비를 못 하다 / .....

6) ..... / .....

3)

시험, 화요일 / 수요일

가 : 시험이 화요일이지요?

나: 그래요? 저는 수요일인 줄 알았는데요.

- 1) 토니 씨의 전공, 경제학 / 철학
- 2) 오늘 공연, 사물놀이 / 한국 전통 춤
- 3) 이번 토요일, 폴 씨의 생일 / 다음 토요일
- 4) 그 영화, 무서운 영화 / 재미있는 영화
- 5) 이 음식, 지연 씨가 만든 것 / .....
- 6) ..... / .....

## 연습2 Mashq 2

1) 본문을 잘 읽고 대답하세요. Matnni o'qib savollarga javob bering.

- 1) 세바라는 수료식에서 상을 몇 개 받았습니까?
- 2) 현호는 왜 수료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까?
- 3) 수료식이 끝나고 세바라와 친구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 4) 왜 현호는 세바라에게 저녁을 사겠다고 했습니까?

5) 두 사람은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까?

## □ 한국의 문화

### ▶ 불고기



'불고기'는 김치와 더불어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좋아하고 즐겨먹던 대표적인 한국 음식 중의 하나입니다. 불고기는 소고기를 얇게 썰어 양념을 한 다음에 불에 구워 먹는 음식인데, 팬이나 숯불에 굽습니다. 경상남도의 언양이라는 지방과 전라남도의 광양이라는 지방의 불고기가 특히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또한 불고기는 현대에 오면서 서양 음식에 익숙한 젊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맛이나 양념을 변형하여 아직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피자나 햄버거에 불고기나 불고기 맛을 이용하는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역시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들도 이런 햄버거나 피자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불고기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불고기 먹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아직 불고기를 먹어 보지 못했다면 오늘 저녁에는 엄마한테 불고기를 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 3 과 일기 예보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연 : 어, 빗방울이 떨어지네.

안바르 : 하늘이 어두워지는데. 곧 소나기가 올 것 같아.

지연 : 일기 예보에서 뭐라고 했는데? 비 온다고 했니?

안바르 : 아니, 비가 안 온다고 했어. 그래서 나도 우산을 안 가져 왔는데.

지연 : 그런데 굉장히 덥다. 한 30도쯤 되겠지?

안바르 : 글썄, 오늘 최고 기온이 33도쯤 될 거라고 했어.

지연 : 바바라가 오늘 같이 테니스 치자고 했는데 너무 더울 것 같아.

안바르 : 그럼, 우리 모두 같이 수영장에 가면 어때?

지연 :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바바라에게 수영장에 가겠냐고 물어볼게.

일기 예보 ob-havo  
빗방울- yomg'ir tomchilari  
소나기- (qisqa muddatli) jala  
가져오다- olib kelmoq  
굉장히- juda  
한 -bir  
도- o'lcham  
최고 -maksimum  
기온-ob-havo harorati  
—(으)르 거라고 하다 –deb aytmq  
(kelasi zamon)  
— 냐고 묻다 –deb so'ramoq  
가져가다- olib ketmoq  
박사 -(fanlar) doktor  
최저- minimal  
영하- noldan past  
끓다- qaynamoq

맑다- aniq  
흐리다-hira, noaniq  
태풍- tayfun  
장마- yomg'ir sezoni  
매일 -har kuni  
기말 시험-yakuniy imtihon  
중간 시험- oraliq imtihoni  
알아보다- bilib ko'rmoq  
장학금- stipendiya  
자동차- avtomobil  
온도- tana harorati  
희다 -oq  
성냥- gugurt  
위험하다- havfli  
불- olov  
핸들- ushlagich  
밭 -oyoq  
초콜릿- shokolad

## 문법 Grammatika

1) N 을/를 가져오다 [가져가다] – ot + ni obkelmoq [obketmoq]

내가 만든 빵을 가져왔는데 좀 잡쉬 보세요.

축하하는 뜻으로 꽃을 사서 가져갑시다.

N을/를 가지고 오다 [가지고 가다] – ot + ni olib kelmoq [olib ketmoq]

친구들과 같이 사진을 찍으려고 학교에 사진기를 가지고 왔어요.

낮에 비가 올 거라고 했으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2) 한 N -cha, atrofida + ot**

박사가 되려면 오래 걸리겠지요? – 네, 한 5년을 걸릴 거예요.

이번 여행에는 돈이 얼마쯤 있어야 할까? – 한 7만 원쯤 필요할 거야.

**3) N도 (쯤) 이가 되다 –ot + lar atrofida bo'lmoq**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서 한 32도쯤 될 거라고 했어요.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가 된다고 했어요.

**N 개[권, 명, 살, 원] (쯤) 되다 – ot + ta [dona, nafar, yosh, won] (atrofida)**

**bo'lmoq**

사과가 몇 개 남았어요? – 열 개쯤 돼요.

그 회사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 한 50명쯤 될 거예요.

**4) A/V-(으) 르 거라고 [것이라고] 하다 – sifat/fe'l + deb aytmoq (kelasi zamon)**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질 거라고 해요.

이번 겨울은 별로 춥지 않을 거라고 해요.

**5) V – 자고 하다 –fe'l + deb taklif bildirmoq**

친구가 저녁 때 만나자고 하는데 내가 일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준석 씨가 비빔밥을 시키자고 했는데 내가 불고기를 먹자고 했어요.

**V- 지 말자고 하다 -fe'l + deb taklif bildirmoq (rad etmoq)**

비가 오니까 등산 가지 말자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영어를 쓰지 말자고 했어요.

**6) AV – 냐고 하다 [묻다] -sifat/fe'l + deb so'ramoq**

준석 씨가 나에게 이 책이 재미있냐고 했어요.

선생님께서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냐고 물어 보셨어요.

**N(이)냐고 하다 [묻다] -ot + deb so'ramoq**

준석 씨가 내게 결혼식이 언제냐고 했어요.

나는 바바라 씨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 보았어요.

### 연습1 Mashq 1

1.

영수 : “주말에 야구 구경 갑시다.”

→영수가 주말에 야구 구경 가자고 했다.

1) 월슨 : “매일 저녁 먹고 공원에서 걸읍시다.”

2) 다나카 : “차를 마시면서 음악을 들읍시다.”

3) 영숙 : “케이크를 사지 말고 집에서 만듭시다.”

- 4) 아버지 :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맙시다.”
- 5) 선생님 : “교실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 6) ..... : .....

2.

영수 : “방학 때 여행 갈 거예요.”

→영수가 방학 때 여행 갈 거라고 했어요.

- 1) 아저씨 : “내일은 장마가 끝나고 더운 날씨가 될 거예요.”
- 2) 다나카 : “다음 달부터 새 회사에 다닐 거예요.”
- 3) 영숙 : “다음 주부터 운전을 배울 거예요.”
- 4) 아버지 : “올해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을 거야.”
- 5) 선생님 : “기말 시험은 중간 시험보다 쉬울 거예요.”
- 6) ..... : .....

3.

영수 : “무엇을 먹겠어요?”

→ 영수가 무엇을 먹겠냐고 했어요.

- 1) 월슨 :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 2) 다나카 : “배운 노래인데 벌써 잊어버렸어요?”
- 3) 영숙 : “서울 생활이 어때요?”
- 4) 아버지 : “무슨 비디오를 빌리고 싶니?”
- 5) 선생님 :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 6) ..... : .....

## 연습2 Mashq 2

1) 본문을 잘 읽고 대답하세요. Matnni o'qib savollarga javob bering.

- 1) 왜 소나기가 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 2) 왜 안바르가 우산을 안 가져왔습니까?
- 3) 최고 기온이 몇 도쯤 될 거라고 했습니까?
- 4) 바바라는 지연이에게 무엇을 하자고 했습니까?

5) 지연이는 바바라에게 무엇을 물어 보려고 합니까?

2) 친구와 이야기해 봅시다. Do'stlar bilan suhbatlashaylik.

1) 여러 나라 도시들의 날씨를 알아봅시다. '-(으)르 거라고 하다' 를 써서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이 얼마나 되는지 친구와 얘기해 봅시다.

Turli shaharlarning ob - havosi haqida bilib olaylik. '-(으)르 거라고 하다'

grammatikasidan

foydalangan holda

do'stlar bilan maksimal va

minimal havo harorati

haqida suhbatlashaylik.

타슈켄트	22/31
뉴델리	30/38
시카고	18/30
서울	22/30
토론토	13/28

런던	14/20
파리	13/23
로마	17/30
모스크바	16/23
방콕	25/30

북경	20/28
타이베이	27/31
시드니	9/21
호놀룰루	23/30
도쿄	26/31

마이클 : 오늘 뉴델리 날씨가 어떻다고 해요?

바바라 : 맑을 거라고 해요.

마이클 : 그래요? 최고 기온이 몇 도쯤 될 거라고 해요?

바바라 : 38도쯤 될 거라고 해요.

마이클 : 최저 기온은 어떨 거라고 해요?

바바라 : 최저 기온은 30도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2) 일기 예보 안내 전화 번호는 001번입니다. 전화를 걸어서 오늘의 날씨를 들어 보고 친구에게 날씨를 얘기해 주세요.

Ob – havoni bilish telefon raqami 001. Shu raqamga qo'ng'iroq qilib bugungi

ob – havoni eshitib ko'rib do'stingizga gapirib bering.

3) 다음 보기를 써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Quyidagilardan foydalangan holda dialog tuzing.

-냐고 하다

-(으)르 거라고 하다

-

(으)르 거냐고 하다

-자고 하다

-지 말자고 하다

1) 가 : 오늘 아침에 일기 예보 들었어요?

나: 뭐라고 했는데요?

가: 오후에 .....고 했어요.

나: 그래요? 친구가 같이 .....고 했는데 어떡하지요?

가: 날씨가 나쁠 테니까 .....고 친구에게 얘기하세요.

2) 가: 게이코 씨에게 좋은 일이 있대지요?

나: 네, 게이코 씨가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고 해요.

가: 정말 잘됐군요. 축하해 주고 싶은데 언제 시간 .....고 물어  
보세요.

나: 그러지요. 될 수 있으면 빨리 만나 한잔 .....고  
전화할게요.

3) 가: 마이클 씨가 언제 새 집으로 이사 갈 거라고 했어요?

나: .....고 했어요.

가: 이사 가려면 힘들 텐데 우리가 도와 주겠다고 마이클 씨에게 전해  
주세요.

나: 이사를 도와 줄 친구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도와 줘도 .....고 했어요.

4) 가: 내일 저녁 연극표가 3장 있는데 같이 갈래요?

나: 좋지요. 그런데 바바라 씨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가: 그러면 바바라 씨에게 .....고 물어 보세요.

나: 물론 .....고 말할 거예요. 바바라 씨는 연극을

굉장히 좋아하니까요.

가 : 그럼 예술의 정단 앞에서 .....고 전해 주세요.

4) 보기와 같이 하세요.

Na'munaga qarab bajaring.

현호 : “학교 생활이 어때요?”

리홍 : “좀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 현호가 학교 생활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리홍이 힘들지만 재미있다고 대답했어요

1) 현호 : “수료식에 왜 안 왔어요?”

리홍 : “고향에 갔다 오느라고 못 왔어요.”

2) 게이코 : “일기 예보에서 뭐라고 했어요?”

리홍 : “일기 예보예를 못 들었어요.”

3) 리홍 : “오후에도 날씨가 흐려요?”

게이코 : “오후에는 맑아질 거예요.”

4) 현호 : “김치가 이렇게 매운 줄 몰랐어요.”

소영 : “물에 씻어 드시면 괜찮을 거예요.”

5) 현호 : “축구 구경 가자.”

소영 : “축구 말고 야구 구경 가자.”

6) 리홍 : “비가 올 것 같아요.”

소영 : “그러면 나가지 말고 집에서 비디오나 봅시다.”

7) 리홍 : “저분이 박 교수님이세요?”

소영 : “박 교수님 아닌데요.”

8) 게이코 : “사진기를 가져 오세요.”

리홍 : “어제 친구에게 빌려 주었는데요.”

9) 현호 : “운전할 줄 알아요?”

소영 : “모르는데요.”

10) 리홍 :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요?”

소영 : “노래 부르기보다 듣기를 더 좋아해요.”

11) 현호 : “국적이 어디니?”

리홍 : “중국이야.”

12) 리홍 : “발음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소영 : “연습을 많이 해야 해요.”

5) 다음 이야기를 읽고 대답하세요. Quyidagi hikoyalarni o'qib savollarga javob bering.

### 날씨 이야기 (1)

아주 더운 여름날입니다. 같은 기온에도 자동차의 색깔마다 차 안의 온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흰색이면 50도, 파란 색은 60도, 까만 색 차는 7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에는 성냥 같은 것을 차 안에 놓으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너무 뜨거워 불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핸들은 최고 80도까지 온도가 높아질 때도 있어서 굉장히 뜨거워지니까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 1) 여름엔 무슨 색 자동차를 타면 덜 더울까요?
- 2) 더운 날씨에 차 안에 두면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 3) 밝은 색 차와 어두운 색 차 안의 온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 날씨 이야기 (2)

더운 여름엔 구두 색깔만 바꿔 신어도 발의 온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남자 구두 안의 온도가 노란 색 구두일 때 39도,

초콜릿 색일때는 43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까만 색일 때는 47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 1) 더운 날씨에는 무슨 색 구두를 신으면 덜 더울까요?
- 2) 여러분 나라에서는 여름에 어떤 신발을 신습니까?

## 속담과 관용어

### 경제와 속담

물건을 살 때 값이 너무 싸다면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속담 중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값싼 물건치고 좋은 것이 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싸게 산 물건은 쉽게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돈만 허비하기 쉽다. 거리에서 파는 카세트 테이프나 지하철에서 파는 각종 물건들을 싼 맛에 샀다가 제대로 써 보지도 못하고 버리게 된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비싼 물건을 선호하는 것도 문제이다. 물건을 살 때에는 품질과 가격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비슷한 가격이라면 더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와 관련된 속담으로 ‘같은 값이면 다홍 치마’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가격이 같다면 품질이 더 좋은 것을 택한다’는 뜻이다. 원래 다홍치마란 새댁이 입는 곱고 귀한 옷이므로 같은 값이면 귀하고 좋은 것을 택한다는 뜻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에는 여기저기 알아보고 비교해서 고르는 것이 좋다.

#### 4 과 우리 오후에 문병 갈까요?

딜쇼드 : 마이클 씨가 오늘도 안 나왔네요.

말리카 : 제가 조금 전에 전화해 보니, 감기가 심해서 못 나온대요.

딜쇼드 : 많이 아프대요?

말리카 : 콧물이 많이 나오고, 열이 난대요. 목소리도 좀 변한 것 같아요.

딜쇼드 : 그것 참 안됐군요. 어서 나아야 할 텐데..... 더구나 며칠 있으면  
시험도 있고요.

말리카 : 아프면 집 생각이 더 날 텐데.....

딜쇼드 : 우리 오후에 문병 갈까요?

말리카 : 좋은 생각이예요. 꽃이랑 과일을 좀 사 갑시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심심할 거예요.

## 새 단어 Yangi so'zlar

문병 -bemordan xabar olmoq  
-아/어 보니(까) -qilib ko'rib  
심하다- jiddiy  
-대요- deb aytishyapti  
콧물 -mishiq  
목소리 -ovoz  
변하다- o'zgarmoq  
낫다 (감기가)- tuzalmoq (shamollash)  
-아/어야 할 텐데-  
더구나 ustiga-ustak  
(이)랑 -bilan  
종일 -kun bo'yi  
신청하다- ariza bermoq

병 -kasallik  
몸- tana (gavda)  
반장 -koreys salati  
뽑다- tanlamoq,  
사고- halokat  
나다 (사고가)- uchramoq (halokatga)  
다치다 -lat yemoq  
수술(하다)- operatsiya (qilmoq)  
안내문 -e'lon  
장학생 -stipendiyator  
신청서- ariza  
내다 (신청서를)- (ariza) bermoq  
환영하다 -chin dildan kutib olmoq

## 문법 Grammatika

### 1) V-아/어 보니(까) – biron narsani qilib ko'rib

집 떠나서 혼자 살아 보니까 힘들어요.

선영 씨가 만든 비빔밥을 먹어 보니 정말 맛이 있었어요.

선생님 댁에 전화를 걸어 보니까 안 계셨어요.

### 2) AV – 대요- sifat/fe'l + deb aytmoq, -다고 하다 ning qisqartirilgan formasi

그 영화가 어떨대요? – 정말 재미있대요. 같이 보러 갈래요?

영숙 씨가 그 동○안 왜 그렇게 바빴대요? – 이사하느라고 바빴대요.

그 아이는 날마다 태권도 연습을 열심히 한대요.

### AV -(으)ㄹ 거래요 – sifat/fe'l + deb aytmoq (kelasi zamon), -(으)ㄹ 거라고

하다 ning qisqartirilgan formasi

내일은 날씨가 흐릴 거래요. 하지만 모레는 다시 맑아질 거래요.

영수 씨는 이번에는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을 거래요.

### N (이)래요 – ot + deb aytmoq, -(이)라고 하다 ning qisqartirilgan formasi

저분이 누구시래요? – 역사학과 교수님이시래요.

일기 예보에서 뭐래요? – 다음 주부터 장마래요.

3) A/V – 아/어야 할 텐데 – sifar/fe'l + bo'lsa kerak, kerak edi, biron narsani

taxmin qilmoq

내일 바다로 놀러 가기로 했어요.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영수 씨 병이 어서 나아야 할 텐데 , 걱정입니다.

\* 그냥 밖에 나가면 추울 텐데, 옷을 더 입으세요.

회의가 곧 시작될 텐데, 정 교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4) N 있으면 N(이)다 – ot + dan keyin + ot

10분 있으면 쉬는 시간이에요.

2주일 있으면 방학이에요. 고향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해야 할 텐데.....

5) N(이)랑 – bilan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랑 나밖에 없어요.

민수 씨가 혼자 온대? – 아니, 친구랑 같이 온대.

## 어휘와 표현 So'z va ifoda

1) 낫다 – tuzalib ketmoq (kasallikdan)

그동안 많이 아팠는데 이제는 병이 다 나았어요.

선생님께서 감기가 심하시대요. 빨리 나오시면 좋겠어요.

## 2) 더구나 - ustiga ustak

주말엔 날씨가 니쁠 거래요. 더구나 태풍이 올 거래요.

한국말을 아직 잘 못 알아들어요. 더구나 뉴스는 더 못 알아들겠어요.

### 연습 1 Mashq 1

1.

영수, 학교, 못 오다/ 감기에 걸리다

가 : 영수 씨가 왜 학교에 못 온대요?

나 : 감기에 걸려서 못 온대요.

1) 그 아이, 울다 / .....

2) 마이클, 한턱, 내다 / .....

3) 마사코, 목소리, 변하다 / .....

4) 수잔, 이사, 가다 / .....

5) 풀, 졸업식, 참석 못 하다 / .....

6) ..... / .....

2.

지영, 언제, 가다 / 2시

가 : 진영 씨가 언제 갈 거래요?

나 : 2시에 갈 거래요.

1) 학생들, 어디, 모이다 / .....

2) 두 사람, 언제, 문병 가다 / .....

3) 저 곳, 무슨 건물, 짓다 / .....

4) 일기 예보, 내일 날씨, 어떻다 / .....

5) 철수 씨, 전공, 무엇으로 바꾸다 / .....

6) ..... / .....

3.

친구, 많이 아프다 / 낫다

가 : 친구가 많이 아프대요.

나 : 어서 나아야 할 텐데.....

1) 내일, 축구 경기, 있다 / .....

2) 비행기, 아침 6시, 출발하다 / .....

3) 친구, 지갑, 잃어버리다 / .....

4) 안나 씨, 장학금, 신청하다 / .....

5) 내일, 반장, 뽑다 / .....

4.

친구, 시장, 가다 / 물건 값이 싸다, 많이 사다

가 : 친구가 시장에 가 보니까 어떻대요?

나 : 친구가 시장에 가 보니 물건 값이 싸서 많이 샀대요.

1) 친구, 그 맥주, 마시다 / 맛있다, 여러 잔 마시다

- 2) 동생, 태권도, 배우다 / 재미있다, 선수가 되고 싶다
- 3) 외국 친구, 한국 신문, 읽다 / .....
- 4) 언니, 그 노래, 듣다 / .....
- 5) 영숙 씨, 그 사람, 얘기하다 / .....
- 6) ..... / .....

5.

**숙제를 하다, 어렵다 / 가르쳐 주다**

**가 : 숙제를 해야 할 텐데, 어려워서 큰일이에요.**

**나 :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 1) 신문을 읽다, 한자를 모르다 / 읽어 주다
- 2) 전화를 걸다, 전화 카드가 없다 / 빌려 주다
- 3) 일을 끝내다, 시간이 모자라다 / .....
- 4) 버스를 타다, 잔돈이 없다 / .....
- 5) 비빔밥을 만들다, 만들 줄 모르다 / .....
- 6) ..... / .....

## 연습 2 Mashq 2

1) 본문을 잘 읽고 대답하세요. Matnni o'qib javob bering.

- 1) 마이클 씨는 오늘 왜 학교에 못 왔습니까?

2) 마이클 씨는 어떻게 아프대요?

3) 시험이 언제입니까?

4) 준석이와 바바라는 어디에 가려고 합니까?

5) 무엇을 사 가려고 합니까?

2) 다음 글을 읽고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Quyidagi matnни o'qib dialog tuzing.

1) 안나 씨가 지난 주말에 길을 건너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한다.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한다. 더구나 수술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하니까 걱정이다. 하여튼 수술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AV - 아/ 어야 할 텐데      AV -대요      더구나      AV -  
(으)르 거래요

가 : 안나 씨가 교통 사고가 ..... (나다)

나 : 많이 ..... ? (다치다)

가 : 네, 다리를 다쳐서 ..... (수술해야 하다)

나 : 그래요? 정말 걱정이네요.

가 : ..... 수술비가 많이 ..... (필요하다)

나 : 정말 큰일이군요. 하여튼 수술이 ..... (잘 되다)

2) 폴 씨는 장학금에 대한 안내문이 1층 입구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다음 학기에 장학생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학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자세히 알아보았다. 그리고 리홍 씨에게도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AV - 아/어야 할 텐데	N 있으면 N -(이)다
V- 아/어 보니(까)	
AV-대(요)	N(이)래(요)

폴 : 학교 사무실에 전화를 ..... 다음 학기 장학생을 .....

(뽑다)

리홍 : 그래? 언제까지 ..... ? (신청하다)

폴 : 다음 주 금요일까지 사무실에 신청서를 ..... (내다)

리홍 : 다른 것은 ..... ?

(필요없다)

폴 : 사진 3장, 자기 소개, 그리고 선생님 편지가 .....

리홍 : 장학생 발표가 언제 ..... ?

폴 : 한 달 .....

(발표이다)

리홍 : 그래?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다.

폴 : 그럼 우리 같이 신청해 볼까?

리홍 : 그래, 그러자.

폴 : 우리 둘 다 장학생이 되면 좋겠다. 그렇지?

리훙 : 그래. 꼭 그렇게..... (되다)

3) 다음 안내문을 보고 ‘-대요’, ‘-(으)르 거래요’, ‘-(이)래요’ 를 써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Quyidagi e’longa qarab ‘-대요’, ‘-(으)르 거래요’, ‘-(이)래요’ grammatikalarini qo’llagan holda dialog tuzib ko’ring.

1) 게이코 씨가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보고 카렌 씨에게 알려 줍니다.

<p>☺</p> <h3>“ 사물놀이를 배웁시다”</h3> <p>누구 : 서울대 학생과 외국 학생</p> <p>기간 : 6주</p> <p>어디 : 기숙사 뒤 운동장</p> <p>준비할 것 : 편한 옷, 운동화 (악기는 빌려 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특히 언어교육원 학생들을 환영합니다.</li><li>• 여기 오시려면 언어교육원 앞에서 학교 버스를 타고 두 번째 정류장에서 내려서 3 분쯤 걸어오시면 됩니다.</li><li>• 이 주일에 2번 모입니다. (월, 금 오후 3:00 - 4:30 )</li><li>• 수료식 때 학생들 앞에서 공연을 할 겁니다.</li><li>• 10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처음 모일 겁니다.</li></ul> <p>많이 많이 참석해 주세요!</p>	<p>☺</p>
---	----------

게이코 : 학교에서 사물놀이를 ..... 같이 안 배울래요?

카렌 : 언제부터 ..... ?

게이코 : .....

카렌 : 기간은 얼마 동안 ..... ?

게이코 : .....

카렌 : 배우는 곳이 어디 ..... ?

게이코 : .....

카렌 : 언어교육원에서 걸어갈 수 ..... ?

게이코 : 걸어갈 수 있지만 좀 머니까 학교 버스를 타는 게 .....

카렌 : 악기를 사야 할 텐데 어떡하지요?

게이코 : 걱정마세요. 악기는 .....

카렌 : 잘됐군요. 그런데 얼마나 자주 ..... ?

게이코 : .....

카렌 : 좋아요. 같이 배웁시다. 알려 줘서 고마워요, 게이코 씨.

2) 다음 두 안내문을 읽고 이야기해 봅시다.

●	●
“언어교육원 등산 대화”	
● 어디 : 관악산	
● 언제 : 1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 누구 : 언어교육원 선생님, 학생, 직원	

- 10시에 언어교육원 앞에서 출발합니다.
- 음료수와 김밥은 언어교육원에서 준비합니다.
- 가시고 싶은 분은 306호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 “잃어버린 가방을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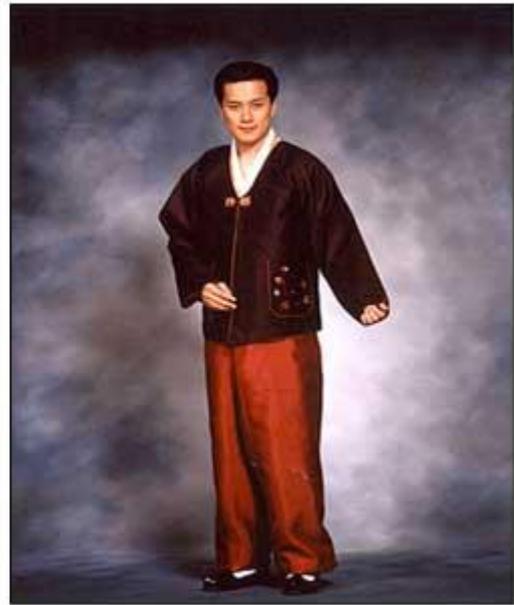
- 언제 : 6월 2 일 오후 3시 반쯤
- 어디에서 : 학생 식당
- 가방 색깔 : 파란 색
- 가방 안에 있는 물건 : 학생증, 수첩, 지갑, 돈 25,000원, 책 3권, 사전
- 연락처 : 가방을 보셨거나 가지고 계신 분은 경영학과, 김선영, 880-5483으로 전화해 주세요.

저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찾아 주시는 분에게는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 한국의 문화

▶ **한복**



혹시 여러분은 '한복'을 입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이 입던 전통 옷을 한복이라고 하는데, 한복은 면이나 마, 비단 등과 같은 천연 옷감에 천연 재료로 염색해서 만들기 때문에 색깔이 아주 고와요. 특히 여자 한복은 치마와 저고리의 선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한복이 양복과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양복은 옷마다 치수가 있지만 한복은 치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복은 평면 모양으로 만든 후 주름이나 끈으로 묶어서 모양을 내니까 누가 입어도 잘 맞고 어울려요. 여자는 아래에는 치마를, 위에는 저고리를 입어요. 남자는 바지와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조끼와 마고자를 입어요.

그렇지만 현대에 와서 서양식 옷이 소개되면서 한국 사람들도 전통적인 한복 대신에 서양식 옷을 많이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명절이나 결혼식과 같이 특별한 날에만 한복을 입어요. 한복은 입는 방법이 복잡하고 현대의 복잡한 생활 방식에는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근래 다시 전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대 생활에도 적합한 생활한복이 만들어졌어요. 생활한복은 한복을 입었을 때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으면서, 세탁하기도 편하게 변형시킨 것이지요. 생활한복은 한국의 전통을 살릴 수도 있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가지면서도 편하기 때문에 입는 사람이 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복을 한 번 입어보세요. 한복을 입고 어른들께 절하는 방법을 배워 본다면 아주 좋을 거예요.

## 5 과 방 값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딜쇼드 : 실례합니다. 며칠 전에 전화로 연락 드린 일본 학생인데요.

아주머니 : 아, 집 때문에 전화한 학생이군요! 어서 들어와요.

딜쇼드 : 네. 방 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 : 그럼요. 이리 따라오세요. 이 방인데, 어때요?

딜쇼드 : 방이 참 밝고 깨끗하네요. 그런데 방 값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아주머니 : 두 사람이 같이 쓰면 한 달에 25만 원이고 혼자 쓰면 40만 원을  
내야 돼요.

딜쇼드 : 이 동네 하숙비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주머니 : 학교 근처라서 다 비슷할 거예요.

### 새 단어 Yangi so'zla

연락(하다) -xabar bermoq

어디나 -hamma yerda

따라오다 -ketidan yurmoq

마찬가지- bir xil

하숙비- pansionat

근처 -atrof

입장료- kirish haqi

방금- tez

엘리베이터 -lift

박물관- san'at muzeyi

승강기- lift

소식 -xabar

개학하다 - (yangi narsani) boshlamoq

누구나- har kim

지리산 -tog' nomi

언제나- har doim

명동 -tuman nomi

무엇이나 -har narsa

세상 -dunyo

어느 것이나 -har qayerda

## 문법 Grammatika

1) 얼마 [누구, 어디, 언제, 무엇] – (이)라고 하다 – qancha [kim, qayer, qachon, nima] deb aytmoq (so'raganda)

입장료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 오천 원이라고 했어요.

전화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셨어요? – 김 사장님이라고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지요? – 승강기라고 해요.

2) 어디나 [누구나, 언제나, 무엇이나, 어느 것이나] (다)

Har qayerda [har kim, har qachon, har qaysi, har nima] (hamma)

서울에는 어디나 사람이 많아요.

여기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영숙 씨는 언제나 부지런해요. 항상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한대요.

그 배우가 나오는 영화는 무엇이든 다 재미있어요.

외국어는 어느 것이든 다 배우기 어려워요.

**무슨[어느, 어떤] N(이) 나 (다)**

**Har qaysi [qanaqa, qanday] (hamma)**

나는 무슨 음식이든 다 잘 먹어요.

제 동생은 어떤 운동이든 다 잘합니다.

### **어휘와 표현 So'z va ifoda**

**1) 연락 [편지, 전화, 소식] (을/를) 주다 [드리다]**

**Biron bir vosita orqali axborot bermoq [xat, telefon, xabar]**

게이코 씨, 일본에 도착하면 꼭 연락 주세요.

부모님께 자주 편지를 드립니다.

**2) 마찬가지로(이)다 – bir hil, huddi shunaqa**

서울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 도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파요. – 나도 마찬가지예요.

### **연습 1 Mashq 1**

1.

어제 사다, 책, 얼마 / 12,000 원
-------------------------

가 ; 어제 산 책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나 : 12,000 원이라고 했어요.

- 1) 방금 지나가다, 분 , 누구 / 경제학과 교수님
- 2) 도서관 옆, 건물, ..... / 박물관
- 3) 배치 고사 보다, 날, ..... / 개학하기 일 주일 전
- 4) 지금 먹다, 음식, ..... / .....
- 5) 대학교 때, 전공, ..... / .....
- 6) ..... / .....

2.

한국 사람, 김치를 좋아하다 / 누구나

가 : 한국 사람은 김치를 좋아하지요?

나 : 네, 한국 사람은 누구나 김치를 좋아해요

- 1) 외국어, 배우기 어렵다 / 무엇이나
- 2) 남대문시장, 복잡하다 / 언제나
- 3) 한국의 산, 아름답다 / 어디나
- 4) 학생들, 시험을 싫어하다 / .....
- 5) ..... / .....

3.

축구, 잘하다

가 : 축구만 잘하세요?

나 : 아니오, 무슨 운동이나 다 잘해요.

- 1) 슬픈 영화, 좋아하다
- 2) 수요일, 괜찮다
- 3) 3급 학생, 열심히 공부하다
- 4) 만화책, .....
- 5) 한국 음식, .....
- 6) .....
- 4.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어디, 물건 값이 싸다

가 :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중에서 어디가 물건 값이 싸요?

나 :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 1) 설렁탕과 갈비탕, 어느 것, 맛있다
- 2) 한라산과 지리산, ....., 올라가기 힘들다
- 3) 명동과 종로, ....., 사람이 많다
- 4) ....., 경치가 아름답다
- 5) ....., .....

## 연습 2 Mashq 2

1) 본문을 잘 읽고 대답하세요. Matnni o'qib savollarga javob bering.

- 1) 다나카 씨는 어디에 왔습니까?
- 2) 왜 왔습니까?
- 3) 다나카 씨가 구경한 방은 어떻습니까?
- 4) 하숙비는 얼마입니까?
- 5) 이 동네 하숙비는 집집마다 다릅니까?

2) 보기에서 맞는 단어를 찾아 ..... 안에 써 넣으세요.

Quyidagi so'zlarga qarab mos kelgan so'zlarni nuqtalar o'rniga qo'yib chiqing.

방금	더구나	굉장히	곧	꼭
참				

- 1) 일이 끝나면 ..... 집에 갈 거예요.
- 2) 주말에는 그 공원에 .....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 3) 이 빵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 만든 빵이에요.
- 4) 그 친구 결혼식에 ..... 가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했다.
- 5) 선생님께 연락 드릴 일이 있는데 선생님을 만나지 못해서 큰일이다. .... 전화 번호도 모른다.
- 6) ....., 게이코 씨한테 전화 거는 걸 잊어버렸네.

3) 학생들끼리 묻고 대답해 보세요. O'quvchilar orasida o'zaro savol javob qiling.

- 1) 우리 반 학생 중 언제나 일찍 오는 사람은 누구지요?
- 2) 우리 반 학생 중 언제나 재미있는 사람은 누구지요?
- 3) 우리 반 학생들이 누구나 부를 줄 아는 한국 노래는 무엇일까요?
- 4) 여러분 나라에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 5) 여러분 가족 중 무슨 일이나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구지요?

6) 우리 반 학생 중 무슨 운동이나 잘하는 사람은 누구지요?

4) 다음을 써 보세요. Quyidagilarni yozing.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넓고,

누구나 .....,

무엇이나 .....,

어디나 .....,

어떤 .....이나 .....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은

언제나 꽃이 피는 곳,

누구나 .....,

무엇이나 .....,

어디나 .....,

어느 .....(이)나 ..... 곳입니다.

5) 이야기해 봅시다.

<p>이름</p> <p>질문</p>			
<p>.....씨가 사는 하숙집의 하숙비는 얼마입니까?</p>			
<p>.....씨 고향의 하숙비는 얼마입니까?</p>			
<p>.....씨 고향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숙을 합니까?</p>			

사람들이 어떤 하숙집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	--	--	--

## 속담과 관용어

### 말과 속담

한국 속담 중에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말이 구만큼 중요하다는 뜻으로, 말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쓰인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도 실수를 이해하고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은 상대방에게 예의바르게 말해야 상대방도 예의를 갖추어 대해 준다는 뜻이다.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함부로 반말을 한다면 상대방은 무척 기분이 나쁠 것이고, 그 사람 역시 함부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와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는 속담은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뜻이다. 흔히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이나 소문을 전할 때 아무도 듣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 퍼져 나가 금세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것이다.

**6 과 하숙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딜쇼드 :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방을 한 번 더 보려고 왔는데 그 방이 아직도 비어 있습니까?

아주머니 : 그럼요.어서 들어와요. 아직 마음에 드는 방을 못 구한 것 같군요. 그런데 하숙 생활을 해 본 적이 있나요?

딜쇼드 :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돼서 하숙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예요.

아주머니 :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집에 외국 학생이 보통 세 명 정도 있는데 다 잘 지내고 있어요.

딜쇼드 : 그런데 식사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머니 : 아침, 저녁만 줘요. 그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딜쇼드 : 전기 요금도 하숙비에 포함됩니까?

아주머니 : 물론이지요. 그런데 전기를 너무 많이 쓰면 곤란해요.

딜쇼드 : 잘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 새 단어Yangi so'zlar

적응하다- moslashmoq

비자 -viza

보통- odatda

오래되다- ko'p vaqt bo'lmoq

정도-ma'lum bir darajagacha

수 -miqdor, soni

전기 -elektr quvvat

취직 (하다-ishga joylashmoq

포함되다- o'z ichiga olmoq

대학원- magistratura

곤란하다 -qiyin, og'ir

들어가다-kirmoq

이동 전화- radio telefon

호텔비-mehmonxona to'lovi

빨래 (하다) -kir yuvmoq

공항 이용료- aeroportdan foydalanish

항공 요금- aeroport to'lovi

to'lovi

## 문법 Grammatika

1) V – (으)ㄹ 수 있을지 걱정이다 – fe'l + ning ilojisi bormikan deb havotir olmoq

도시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비자를 빨리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2) V – (으)ㄴ 지(가) 얼마 안 되다 – biron bir harakatning sodir bo'lganiga ko'p vaqt bo'lmaganligini bildiradi, fe'l + ligiga uncha ko'p vaqt bo'lmaslik  
서울에 온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그 친구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V – (으)ㄴ 지(가) 오래되다 - biron bir harakatning sodir bo'lganligiga ko'p vaqt bo'lganligini bildiradi, fe'l + ligiga ko'p vaqt bo'ldi

이 건물은 지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영어를 안 쓴 지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요.

3) N 정도 – nimaningdir doirasida aniqlovchining darajasi va chegarasini aniqlashini anglatadi, ot + darajasigacha, -gacha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돼요? – 학생이 약 100명 정도 돼요.

중간 시험 잘 봤어요? 점수가 좋지요? – 그저 그래요. 80 점 정도밖에 안 돼요.

4) N 이/가 N 에 포함되다 – ot... ot + ni ichiga kirmoq, ot...ot + ni o'z ichiga olmoq

책 값이 등록금에 포함돼요? – 아뇨, 포함 안 돼요.

10 과가 이번 시험에 포함됩니까? – 네, 물론 포함되죠.

5) A/V – (으)면 곤란하다 – sifat/ fe'l + sa qiyin bo'lmoq

날마다 늦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틀린 것이 너무 많으면 곤란해요.

### 연습 1 Mashq 1

1.

한국 생활, 처음이다 / 잘 적응하다

가 : 한국 생활이 처음이라지요?

나 : 네, 그런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 1) 봄 학기, 장학금을 신청하다 / 장학금을 받다
- 2) 졸업 후, 취직하려고 하다 / 좋은 회사, 취직하다
- 3) 제주도, 태풍이 오다 / 여행 가다
- 4) 빈 방, 찾다 / 학교 근처, 구하다
- 5) 9시 비행기, 타야 하다 / 공항, 일찍 가다
- 6) ..... / .....

2.

한국말, 배우다

가 : 한국말을 배운 지 오래되셨어요?

나 : 아니오, 한국말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 |                  |                |
|------------------|----------------|
| 1) 동생, 대학원에 들어가다 | 4) 그 회사, 취직하다  |
| 2) 정 교수님, 알게 되다  | 5) 이 도시, 이사 오다 |
| 3) 이 교과서, 만들다    | 6) .....       |

3.

여기, 담배 피우다 / 밖에 나가서 피우다

가 : 여기서 담배 피워도 괜찮아요?

나 : 여기서 담배 피우면 곤란해요. 밖에 나가서 피워야 해요

1) 하루 전, 연락 드리다 / 3일 전까지, 연락하다

2) 수료식, 참석 안 하다 / .....

3) 수업 시간, 이동 전화 받다 / .....

4) 비행기표, 예약 안 하다 / .....

5) 숙제, 안 해 오다 / .....

6) ..... / .....

## 연습 2 Mashq 2

1) 본문을 잘 읽고 대답하세요. Matnni o'qib javob bering.

- 1) 다나카 씨는 오늘 하숙방을 처음 보러 왔습니까?
- 2) 다나카 씨는 무엇을 걱정합니까?
- 3) 이 하숙집에 외국 학생이 있습니까?
- 4) 이 하숙집에서는 점심도 줍니까?
- 5) 전기 요금도 하숙비에 포함됩니까?

2)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Dialog tuzing

V -(으)르 수 있을지 걱정이다

V -(으)ㄴ 지(가) 얼마 안 되었다

N 정도

V -(으)ㄴ 지(가) 오래되었다

N 이/가 N에 포함되다

A/V -(으)면 곤란하다

1) 가 : 이번 시험에 19 과도 .....?

나 : 아니오, 포함되지 않아요.

가 : 시험을 잘 .....

나 : 저는 앞에서 배운 문법은 공부 .....서 많이  
잊어버렸어요.

가 : 몇 점 ..... 받으면 진급할 수 있대요?

나 : 70점 이상이면 진급할 수 있대요. 숙제를 매일 했지요?

가 :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는데, 왜요?

나 : 숙제를 잘 안 ..... 숙제도 점수 .....니까요.

2) 가 : 어머니 옷을 한 벌 사고 싶은데 치수를 잘 모르겠어요.

나 : 키가 어느 .....되세요?

가 : 한 160cm ....되시고 몸은 저기 저 여자분 .....되는 것 같아요.

나 : 그러면 이 옷은 어떠세요?

가 : 저희 어머니는 밝은 색을 좋아하시니까 색이 너무 .....

나 : 그러면 이게 더 좋겠네요. 값도 비싸지 않고, 입으시면 아주 예뻐  
거예요.

가 : 이 옷에 이 모자도 ..... ?

나 : 아니오, 모자는 .....

가 : 아, 그래요? 모자도 포함되면 좋을 텐데..... 이 옷이 어머니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지요?

나 : 마음에 안 드시면 바꿀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3) 가 : 요즘 영화 본 적이 있어요?

나 : 아니오, 영화 .....

가 : 나도 그래요. 시험도 끝났는데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볼래요?

나 : 좋아요. 그런데 토요일은 약속이 있어서 좀 곤란해요.

가 : 그럼 일요일 3시 .....이/가 어때요?

나 : 그래요. 그런데 일요일이라 표를 .....

가 : 걱정 마세요. 내가 극장에 전화해서 표를 예약해 놓을게요.

4) 가 : 다나카 씨, 요즘 많이 아팠다지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좀 만들어  
왔어요.

나 : 그 동안 아파서 밥을 잘 못 먹었는데, 정말 고마워요.

가 : 음식이 입에 맞아야 할 텐데.....

나 : 아주 맛있네요. 집에서 만든 음식을 ..... 혼자

하속

생활을 해 보니까 고향 생각이 더 나네요.

가 : 많이 먹도록 하세요. 외국에서 살면서 아프면 ..... 가족이 옆에  
없으니까요.

## □ 한국의 문화

### ▶ 비빔밥



여러분, '비빔'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건 여러 가지를 넣고 한꺼번에 섞는다는 뜻이에요. '비빔밥'은 이름 그대로 밥에 다양한 나물, 고기, 계란, 양념 등을 넣어 참기름과 함께 비빈 밥입니다. 비빔밥은 전라도 전주의 비빔밥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밖에도 열무 김치를 넣어 만든 열무 비빔밥, 산나물을 많이 넣은 산채 비빔밥, 돌솥에 밥과 여러 나물 등을 넣은 돌솥 비빔밥 등 재료에 따라 이름도 가지각색입니다. 요즘에는 세계 각 국으로 다니는 한국 비행기 안에서도 비빔밥을 주는데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주식이 밥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밥을 너무 많이 해서 남았을 때 찬밥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답니다. 물론 이것은 집에서 간단하게 먹는 방법이에요. 정식으로 만든 비빔밥은 더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지요. 비빔밥은 특별한 재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변화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맛에 따라 좋아하는 것은 넣고 싫어하는 것은 빼 수도 있지요. 다양한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많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영양 만점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물론 외국사람들까지 즐겨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 7과 서울에서 집 사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딜쇼드: 지연씨, 제가 조금 늦었죠?

지연 : 아니예요. 아직 한 사람도 안 왔어요. 토요일이라서 길이 굉장히 막히나 봐요.

딜쇼드 : 저만 늦는 줄 알고 걱정했어요. 이거 가루비누예요. 집들이 갈 때에는 휴지나 가루비누를 사 간다고 들었어요.

지연 : 고마워요. 잘 쓰겠어요. 모두 늦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딜쇼드: 곧 오겠지요. 기다리는 동안 집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지연 : 그러세요. 하지만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엉망인데.....

딜쇼드: 괜찮아요. 집이 아주 큰 것 같은데 이 집을 사셨어요?

지연 : 아뇨. 이걸 전세예요. 서울에서 집 사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 새 단어 Yangi so'zlar

별- yulduz

따다- uzmoq

가루비누 -kir yuvish kukuni	냄새-hid, is
집들이 -uy to'y	부인- turmushga chiqqan ayol
휴지 -salfetka	벌다 (돈을)- ishlab topmoq (pul)
어떡하다 -qanday qilib	글씨 -yozuv
정리 (하다)- tartibga keltirmoq,	특별하다 -maxsus, o'zgacha
yig'ishtirmoq	매매 -olib-sotish
엉망이다- tartibsizlik	평 -o'lchov birligi
전세 uy ijarasi (har xil muddatga)	억- 100 million
대통령 prezident	월세 -uy ijarasi (oyma oy)
63빌딩 bino nomi	보증금- pul bilan ta'minlash, badal
졸업생 bitiruvchi	자취 -iz
유학(하다) malaka oshirish (oshirmoq)	부엌 -oshxona
목욕(하다)- cho'milish (cho'milmoq)	

## 문법 Grammatika

1) V -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 fe'l +ish osmondan yulduz uzish bilan bir xil

이 시간에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대통령을 만나 이야기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2) 한 N도 안 [못] V – biron bir harakatni ilgari hech qachon qilib

ko'rmaganligini ifodalash uchun qo'llaniladi, bir + ot+ ham + fe'l + ko'rmaslik

63 빌딩에 가 봤어요? – 아직 한 번도 못 가 봤어요.

졸업생 중에 몇 명이나 유학 갔어요? – 한 명도 안 갔어요.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요.

**3) V –나 보다 – fe'lga qo'shilib taxmini ifodalaydi, fe'l + ga o'xshamoq**

언니는 뭐 하니? – 지금 목욕하나 봐요.

엄마가 음식을 하시나 봐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A –(으)ㄴ 가 보다 –sifatga qo'shilib taxmini ifodalaydi, sifat + ga**

**o'xshamoq**

박 선생님이 이번 주엔 바쁘신가 봐요.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하셨어요.

리홍 씨 고향은 아름답고 날씨도 항상 좋은가 봐요. 한번 가 보고 싶어요.

**N인가 보다 –otga qo'shilib taxmini ifodalaydi, ot + ga o'xshamoq**

지금 쉬는 시간인가 봐요. 학생들이 나와 있네요.

이 차가 영미 씨가 새로 산 차인가 봐요.

**4) A/V –다고 듣다 – sifat/fe'l + deb eshitmoq**

그 식당 음식이 맛있다고 들었어요.

지난 겨울엔 추웠다고 들었어요.

**A/V –(으)ㄹ 거라고 듣다 –sifat/fe'l + deb eshitmoq (kelasi zamon)**

새로 짓는 도서관이 크고 좋을 거라고 들었어요.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올 거라고 들었어요.

**N(이)라고 듣다 –ot + deb eshitmoq**

떡국은 설날에 먹는 음식이라고 들었어요.

철수 씨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5) AV –(으)ㄴ/는데 어떡하죠?- sifat/fe'l + edi qanday qilamiz?**

식당에 자리가 없는데 어떡하죠? – 다른 식당에 갑시다.

오늘 만날 수 있어요? – 오늘은 할 일이 많은데 어떡하죠?

**6) N이/가 엉망이다 – ot + tartibsiz bo'lmoq, chalkash bo'lmoq**

빨리 쓰느라고 글씨가 엉망이에요.

듣기 시험은 엉망이었어요.

연습 1 Mashq 1

1.

영호 씨, 기분 좋다 / 월급 많이 오르다

가 : 영호 씨가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나 : 아마 월급이 많이 올랐나 봐요.

1) 준석 씨, 기분이 나쁘다 / 지갑을 잃어버리다

2) 진희 씨, 피곤하다 / 일 때문에 밤 늦게까지 일하다

3) 민영 씨, 슬프다 / 나쁜 소식을 듣다

4) 아주머니, 얼굴색이 나쁘다 / 잠을 못 주무시다

5) 지연 씨, 예쁘다 / .....

6) ..... / .....

2.

영숙 씨, 회의에 참석 못 하다 / 다른 일 때문에 바쁘다

가 : 영숙 씨가 왜 회의에 참석 못 한대요?

나 : 다른 일 때문에 바쁜가 봐요.

- 1) 그 옷 가게, 사람이 많다 / 다른 것보다 물건 값이 싸다
  - 2) 지영 씨, 늦잠을 자다 /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
  - 3) 읽기 시험, 학생들 성적이 나쁘다 / 시험 문제가 어렵다
  - 4) 마이클, 자주 결석하다 / 건강이 안 좋다
  - 5) 아이들, 만화 보다가 웃다 / .....
  - 6) ..... / .....
- 3.

마이클 씨, 왜, 고향에 가다 / 부모님이 아프다

가 : 마이클 씨가 왜 고향에 간대요?

나 : 부모님이 아프셔서 간다고 들었어요.

- 1) 미선 씨, 왜, 돈이 필요하다 / 특별한 사정이 있다
- 2) 영숙 씨, 언제, 집들이하다 / .....
- 3) 준호 씨, 어디, 유학 가다 / .....
- 4) 안나 씨, 무엇, 전공하다 / .....
- 5) 한국, 집 사기, 어떻다 / .....
- 6) ..... / .....

## 연습 2 Mashq 2

- 1) 본문을 잘 읽고 대답하세요. Matnni o'qib savollarga javob bering.

- 1) 다나카 씨는 친구 집에 왜 왔습니까?
- 2) 지연 씨의 집에 친구들이 모두 왔습니까?
- 3) 다나카 씨는 선물로 무엇을 사 갔습니까?
- 4) 다나카 씨는 친구들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 5) 이 집은 지연 씨가 산 집입니까?

2) 보기와 같이 이야기를 만드세요. Na'munaga qarab dialog tuzing.

가 : 이게 무슨 소리지요?  
 나 : 밖에 비가 내리나 봐요.

1) 가 : 요즘 준석 씨는 어떻게 지낸대요?

나 : 나한테 전화도 잘 안 하는 것을 보니까 많이 .....

2) 가 : 크리스 씨가 왜 갑자기 귀국했대요?

나 : 글썄요. 아마 .....

3) 가 : 저 극장 앞에 왜 사람들이 많이 서 있지요?

나: 그 영화가 아주 .....

4) 가 : 오늘 다나카 씨가 많이 먹네요!

나 : 이 식당 음식이 .....

5) 가 : 외국 학생들이 한국 신문을 읽고 있지요?

나 : 아마 그 학생들이 단어를 .....

6) 가 : 백화점에 사람이 많네요!

나 : 아마 오늘부터 물건을 아주 싸게 .....

7) 가 : 왜 3급반 학생들이 모두 식당으로 가지요?

나 : 소도코 씨가 우등상을 타서 .....

8) 가 : 저 아이가 왜 울고 있어요?

나 : .....

9) 가 : 혜진 씨가 왜 저렇게 웃는대요?

나 : .....

3) 친구들과 ‘-다고 / -라고 들었어요’ 를 써서 묻고 대답해 봅시다.

Do'stlaringiz bilan ‘-다고 / -라고 들었어요’ grammatikasini qo'llagan holda savol javob qiling.

친구 이름			
질문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들었어요?			
한국에서 어디가 여행하기에 좋다고 들었어요?			
어디에서 싸고 좋은			

<b>물건을 살 수 있다고 들었어요?</b>			
------------------------------	--	--	--

4) 1)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Do'stlarimiz bilan suhbatlashib ko'raylik.**

1) 여러분 나라에서도 집들이를 합니까? 집들이를 어떻게 합니까?

집들이를 할 때 사 주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까?

2) 여러분 나라에도 전세가 있습니까? 집 사기는 어떻습니까?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을 만들어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Do'stingizning hikoyasini tinglab quyidagini to'ldirgan holda boshqa**

**do'stlaringizga gapirib bering.**

<p>1) 친구의 고향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고 들었어요.</p> <p>그리고 집들이에 초대 받을 때는 .....(이)나.....을/를 선물로.....가져간다고 들었어요.</p> <p>2) .....에서는 집 사기가 .....고 들었어요.</p> <p>그래서 사람들은 .....다고 들었어요.</p>
--

5) 다음을 보고 자기가 살고 싶은 집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Quyidagi berilgan jadvalga qarab o'zimiz yashashni hohlagan uyimiz haqida suhbatlashaylik.

☺  
매매  
아파트  
1억 원

☺  
전세  
아파트 15평  
3천만 원

☺  
월세  
방2, 지하철역  
근처  
보증금 500만 원,  
월 30만 원

☺  
자취방 있음  
방1, 부엌, 욕실  
보증금 100만 원,  
월 20만 원

## 속담과 관용어

### 명사형으로 끝나는 관용 표현

관용어 중에는 비슷한 형태를 가진 것이 많은데 특히 명사형 '-기'로

끝나는 관용어가 많다.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 땅 짚고 헤엄치기’ 등은 너무나도 하기 쉬운 일을 가리킬 때 쓴다. 예를 들어 ‘한글을 읽을 줄 알아요?’하고 묻는다면 ‘그거야 식은 죽 먹기지요.’라고 대답할 수 있다. 반대로 아주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일을 가리킬 때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한다. 훌륭한 선수들이 모두 출전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 ‘하늘의 별 따기’이다.

일의 쉽거나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과 관계없는 명사형 표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언 발에 오줌 누기’와 ‘누워서 침 뱉기’가 있다. ‘언 발에 오줌 누기’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본질적인 해결책 대신 임시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으나 곧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누워서 침 뱉기’는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사용한다. 간혹 가른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이나 친구의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결국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된다.

## 8과 소리가 들려서 시끄러워요.

딜쇼드 : 저기 보이는 게 관악산이지요? 경치가 좋네요.

지연 : 그것 때문에 이 집으로 이사 왔어요.

딜쇼드 : 산이 가까워서 공기도 좋겠네요.

지연 : 네. 창문을 열면 아주 시원해요. 하지만 차 소리가 들려서 좀 시끄러워요.

딜쇼드: 여기가 안방인가요? 꽤 넓군요.

지연 : 네. 방은 넓은 편인데 욕실이 좁아서 불편해요.

딜쇼드: 우리 하숙집은 욕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정말 불편해요.

지연 : 저도 다른 외국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딜쇼드: 지금은 불편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겠지요.

### 새 단어 Yangi so'zlar

들리다- eshitilmoq

시끄럽다 -shovqin bo'lmoq

열다-ochmoq

시원하다- salqin bo'lmoq

안방- oshxonaga birlashgan xona

좁다 -tor bo'lmoq

바뀌다- almashtirmoq

도둑- o'g'ri

경찰 -militsiya

잡히다- ushlanmoq

읽히다 (책이) -o'qilmoq (kitob)

팔리다- sotilmoq

끊기다- uzilmoq  
쫓기다- haydalmoq, quvilmoq  
쫓다-haydamoq, quvmoq  
쓰이다-ishlatmoq  
잠그다 -qulfga yopmoq  
잠기다 -qulfga yopilmoq  
달히다- yopilmoq  
막다- to'smoq, yopmoq  
열리다 (문이)- ochilmoq (eshik)

안다 -quchmoq, bag'riga bosmoq  
안기다 -quchmoq, bag'riga bosmoq  
휴게실 -dam olish xonasi  
출퇴근- ishga borib kelmoq  
양말 -paypoq  
꽃병- guldon  
이상하다 -g'alati bo'lmoq  
지하실- padval

## 문법 Grammatika

1) V – 이 / 히 / 리 / 기 –fe'lga qo'shilib majhul nisbatni bildiradigan

qo'shimchalar

바다가 보입니다. (나는 바다를 봅니다.)

주소가 바뀌었어요. (나는 주소를 바꾸었어요.)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어요. (경찰이 도둑을 잡았어요.)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습니다.)

밖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요. (음악 소리를 들어요.)

요즘 이 잡지가 잘 팔려요. (잡지를 팔아요.)

전화가 끊겼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쥐가 고양이에게 쫓깁니다. (고양이가 쥐를 쫓습니다.)

이	히	리	기
---	---	---	---

놓다 - 놓이다	달다 - 달히다	걸다 - 걸리다	끊다 - 끊기다
바꾸다 - 바뀌다	읽다 - 읽히다	듣다 - 들리다	안다 - 안기다
보다 - 보이다	막다 - 막히다	열다 - 열리다	쫓다 - 쫓히다
쓰다 - 쓰이다	잡다 - 잡히다	팔다 - 팔리다	
잠그다 - 잠기다			

문에 3급반이라고 쓰여 있어요.

교실 문이 잠겨 있어요.

창문이 닫혀 있어요.

가방이 열려 있어요.

\* 책상 위에 예쁜 꽃병이 놓여 있어요.

휴게실에 그림이 여러 개 걸려 있어요.

## 2) AV -(으)ㄴ/는 편이다

이 곳은 교통이 복잡한 편이에요

올해는 좀 더운 편이지요

### 연습 1 Mashq 1

1.

한국 음식, 좋아하다 / 매운 것

가 : 한국 음식을 좋아하니?

나 : 매운 것만 빼고 좋아하는 편이야.

- 1) 영화, 좋아하다 / 무서운 것
- 2) 운동, 잘하다 / 수영
- 3) 그 식당 음식, 맛있다 / .....
- 4) 그 사람 , 괜찮다 / .....
- 5) 기숙사, 마음에 들다 / .....
- 6) ..... / .....

2.

무슨 과일, 잘 팔다 / 사과

가 :무슨 과일이 잘 팔려요?

나 : 사과가 잘 팔려요.

- 1) 길, 언제, 막다 / 출퇴근 시간
- 2) 몇 시, 지하철, 끊다 / .....
- 3) 밖, 무슨 소리, 듣다 / .....
- 4) 교실, 무엇, 보다 / .....
- 5) 그 곳, 무슨 생선, 잡다 / .....
- 6) ..... / .....

## 연습 2 Mashq 2

1) 본문을 잘 읽고 대답하세요. Matnni o'qib savollarga javob bering.

- 1) 지연이의 집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 2) 창문을 열면 어때요?
- 3) 이 집에서 불편한 것은 무엇입니까?
- 4) 다나카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 5) 다나카의 집에서 불편한 것은 무엇입니까?

2) 다음 단어를 알맞게 고쳐서 ( ) 안에 써 넣으세요.

Quyidagi so'zlarni qovuslar ichiga moslashtirib yozib chiqing.

보다	쓰다	잡그다	바꾸다	놓다	달다
		막다			
잡다	걸다	듣다	열다	팔다	끊다
		쫓다			

1) 가 : 저기 ( )는 건물이 무엇이지요?

나 : 전에는 식당이었는데 지금은 결혼식장으로 ( )었어요.

2) 가 : 창문이 잘 안 ( )는데 어떡하지요?

나 :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 )줄게요.

3) 가 : 준석 씨는 운동화하고 내 것이 서로 ( )었나 봐요.

나 : 그래요? 몰랐어요.

4) 가 : 영국에 간 친구와 요즘도 연락이 돼요?

나 : 아니오. 그 친구와 연락이 ( )지 오래되었어요.

5) 가 : 경찰이 도둑을 잡았대요?

나 : 아니오. 아직도 그 도둑이 안 ( )대요.

6) 가 : 아주머니, 요즘은 어떤 과일이 잘 ( )요?

나 : 사과하고 귤이 잘 ( )요. 뭘 드릴까요?

7) 가 : 왜 길이 이렇게 ( )지요?

나 : 저 앞에서 큰 사고가 나서 그래요.

8) 가 : 그 사무실에는 무슨 사진이 ( )있어요?

나 : 설악산 사진이 ( ) 있어요.

3) '-이/히/리/기' 를 써서 다음을 아주 무서운 이야기로 만들어 보세요.

'-이/히/리/기' grammatikasidan foydalangan holda quyidagi hikoyani

qo'rqinchli qilib tuzing

*내 이름은 김민수, 이제 한 달 후면 결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살 집을*

*구하느라고 무척 바쁘다. 그런데 지난 주에 집 때문에 아주 이상하고 무서운 일이 있었다.*

*값이 아주 싼 집이 있어서 친구와 보러 갔는데 그 집은 문이 열려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

우리는 조금 무서웠지만 집을 조금 더 보려고 이층으로 올라가 방을 구경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문이 ..... 다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안 .....  
.더구나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 그 때 이층으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  
.....  
.....  
.....

정말 이상하고 무서웠다. 다시는 그 집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다.

## □ 한국의 문화

### ▶ 한국의 집



여러분, 혹시 '한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국의 전통식 집을 한옥이라고 하는데, 한옥은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온돌'식 방을 사용했습니다. 또 덥고 비가 자주 내리고 습기가 많은 여름을 지내기

위해 땅에서 약간 떨어진 높이에 나무를 이어서 만든 '마루'를 사용했어요. 특히 온돌식 난방은 한국 사람들의 생활에 뿌리깊게 자리잡아, 지금도 집의 겉모양은 서양식이지만 방은 온돌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한옥에서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등 많은 가족들이 함께 살았는데, 이런 가족을 대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로 구성된 소규모의 가족 단위로 삽니다. 이런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하지요. 핵가족이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이 큰 도시에 많이 살게 되면서 한국에는 한옥 대신에 아파트가 아주 많아졌어요. 아파트는 작은 공간에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적은 수의 가족들이 살기 편하기 때문이지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살고 있어요? 또 가족은 몇 명이에요? 여러분의 집과 가족들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 제 9과 언제든지 예금하고 찾을 수 있지요?

안와르 : 말씀 좀 여쭙 보겠습니다.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직원 : 외국인이라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우선 이 용지에 성명,  
주소, 여권 번호를 쓰세요.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해도 돼요.

안와르 : 언제든지 예금하고 찾을 수 있지요?

직원 : 물론이지요. 여기에 비밀 번호도 쓰세요. 돈 찾는 법은 아세요?

안와르 : 잘 몰라요. 좀 가르쳐 주세요.

직원 : 이 용지에 찾고 싶은 금액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찾아도 되고,  
현금 카드를 사용해도 돼요.

안와르 :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 : 안녕히 가세요.

### 새 단어 Yangi so'zlar

예금하다- bankga pul qo'ymoq

우선-avval, oldin

여쭙다 / 여쭙다 -so'ramoq (hurmatda)

용지- blank, forma

통장- omonat daftarchasi

성명 -ism-sharif

도장 -pechat	저금(하다) -pulni saqlamoq
찍다 -qo'ymoq (pechat)	담그다- tuzlamoq
서명(하다)- qo'l qo'ymoq	청구서-talabnoma, zayavka
언제든지- har qachon	계좌 번호 -hisob raqami
비밀 -sir, sekret	수표- chek
금액 -summa	거래 은행- oldi-sotdi banki
사용하다- foydalanmoq	농협- qishloq xo'jaligi birlashmasi
어디든지- har qayerda	주민등록번호- shaxsning registratsiya
누구든지- har kim	raqami
무엇이든지- har narsa	입금(하다) -omonatga pul qoy'moq

## 문법 Grammatika va ifoda

**1) 언제든지 [어디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har qachon [har qayer, har kim, har narsa]**

언제든지 도와 드릴 테니까 연락하세요.

요즘은 어디든지 차가 막혀요.

누구든지 일찍 오는 사람이 문을 엽시다.

저는 무엇이든지 다 잘 먹어요.

**2) 여쭙다/ 여쭙다 – biron narsani so'ramoq (hurmat shaklda)**

잘 모르면 선생님께 여쭙 보세요.

옛날 일은 할머니께 여쭙 봅시다.

**3) AV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 sifat/fe'l + ga o'xshamoq (tahmin)**

준석 씨가 많이 아픈 모양이에요. 학교에 안 왔어요.

할머니께서 주무시는 모양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소나기가 내릴 모양이에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네요.

**4) 우선 – avval, oldin, avvalam bor**

배고프니까 우선 식사부터 합시다.

우선 숙제를 끝내고 노는 게 어때요?

**5) V -는 대신 – fe'l + ning o'rniga**

맥주를 마시는 대신 차나 한잔 합시다.

전화를 거는 대신 편지를 썼다.

\* 맥주 대신 차나 한잔 합시다.

**6) V -는 법 – fe'l + usul , biron nimani qilish usuli**

젓가락 쓰는 법을 잘 몰라요.

이동 전화 사용하는 법을 아직 잘 몰라요.

연습 1 Mashq 1

1.

가: 출퇴근 시간엔 특히 어디가 길이 막혀요?

나: 출퇴근 시간엔 어디든지 길이 막혀요.

1) 가: 선생님, 언제쯤 만나 뵈 수 있을까요?

나:.....

2) 가: 내가 한턱 낼게요. 무엇을 먹고 싶어요?

나: .....

3) 가: 이번 방학에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나:.....

4) 가: 이 식당은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나: 아니오,.....

5) 가: 어른들만 이 영화를 볼 수 있어요?

나: 아니오,.....

6) 가:.....?

나:.....

2.

가: 철수 씨가 요즘 어떻게 지낸대요?

나: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바쁘게 지내는 모양이에요

1) 가: 세바라 씨가 결석했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나:.....  
.....

2)가: 저 하늘 좀 보세요. 갑자기 어두워지는데요.

나:  
.....  
.....

3) 가: 딜쇼드 씨가 저렇게 화가 났지요?

나:.....  
.....

4) 가: 아크롬 씨가 방학 동안에 고향에 간대요?

나:.....

.....

5) 가: 안와르 씨가 왜 세바라 씨를 안 만난대요?

나:.....

.....

3.

가: 영숙 씨 생일인데 꽃을 사 갈까요?

나: 꽃을 사 가는 대신 좋아하는 과일을 사 갑시다

1) 가: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커피가 지금 없대요.

나: 그럼.....

2) 가: 시간이 없는데, 택시를 타고 갈까요?

나: .....

3) 가: 방 청소를 도와 줄까요?

나:.....

4) 가: 돈을 찾을 때 꼭 도장을 찍어야 해요?

나: .....

5) 가: 배가 고프는데 라면을 끓일까요?

나:.....

## 연습 2 Mashq 2

1. 본문을 잘 읽고 대답하세요. **Matnni o'qib savollarga javob bering.**

- 1) 통장을 만들 때 용지에 무엇을 쓰면 돼요?
- 2) 통장을 만들려면 도장을 꼭 찍어야 합니까?
- 3) 현금 카드는 언제 사용합니까?
- 4) 돈 찾는 법을 얘기해 보세요.

2. ()안의 말을 써서 대답하세요

( ) **Qavs ichiga to'g'ri so'z yozib javob bering.**

1) 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맥주 한잔 합시다

나:..... (-는 대신)

2) 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나:..... (-든지)

3) 가: 이 문제를 잘 모르겠어요

나:..... (여쭙다)

4) 가: 시험도 끝났으니 영화나 보러 갈까요?

나:..... (우선)

## 속담과 관용어

### 날씨와 속담

한국의 속담 중에는 날씨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다. 그중 ‘거미가 줄을 치면 날씨가 좋다’는 날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속담이다. 이 말은 거미가 맑은 날에만 줄을 치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이와 같은 속담은 날씨의 특징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특별한 교훈을 주지는 않는다.

한편,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와 같은 속담은 날씨의 특징을 알려 준다기보다는 우리 삶에 교훈을 주는 속담이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비 온 후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겪고 난 후에 더욱 성숙해진다는 의미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원래 가랑비처럼 아주 조금씩 내리는 비도 계속 맞다 보면 흠뻑 젖게 된다는 뜻이다. 이 속담은 돈 씹씹이에 빗대어 자주 쓰이는데, 돈을 쓸 때는 계획을 잘 세우고 돈을 절약해서 써야 한다는 의미이다.

## 10 과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

세탁소 주인 : 어서 오세요. 안바르 씨, 오랜만이에요

안바르 : 안녕하세요? 그동안 여행 갔다 오느라고 못 왔어요.

세탁소 주인 : 어떤 옷을 맡기셨지요?

안바르 : 회색 겨울 양복요. 삼 주일 전에 맡겼어요.

세탁소 주인 : 잠깐 기다려 보세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따 다시 한 번 오시겠어요?

안바르 : 그럼 저녁 때 다시 올게요. 그 옷은 제가 제일 아끼는 옷인데  
내일 입어야 하거든요.

세탁소 주인: 걱정 마세요.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꼭 찾아 들게요.

## 새 단어 Yangi so'zlar

아무리 -qanchalik

어디에선가- qaerdandir

세탁소 - kir uyvish uskuna

치과- stomatologiya

맡기다 – topshirmoq

보너스- - bonus

회색 – kulrang

식비- oziq-ovqat harajati

양복 – kostum

교통비- transport uchun xarajat

대단히 - juda ko'p,haddan tashqari

수도- poytaxt

아끼다- faqatgina 문화비-

madaniyat uchun harajat

어디엔가 – qayerdadir ayamoq,

asramoq 기타- gitara

두다 -saqlamoq

합계-jami

잠시 –qisqa vaqt

구두쇠 –qizg'anchiq odam

## 문법과 표현 Grammatika va ifoda

### 1. 아무리 A/V-아/어도 qanchalik bo'lmasin sifat/fe'l .

아무리 비싸도 필요한 책은 꼭 사야 해요

아무리 바빠도 꼭 오세요

### 2. AV -ㅂ/습니다만 sifat/fe'l lekin deb tarjima qilinadi.

죄송합니다만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 식당은 음식 맛이 좋습니다만 값이 좀 비싼 편이에요

### 3. N을/를 아끼다 ot +ni avaylamoq

이 가방은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야.

무엇이든지 너무 아끼는 사람을 구두쇠라고 불러요.

### 4. AV-거든요 ot +ni avaylagani uchun ishlatdim.

벌써 자요? -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거든요.

왜 학교에 안 가세요?- 수업이 없거든요.

### 5. 어디엔가/어디에선가 qaerdadir/qaerdandir

이 세상 어디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도장을 어디엔가 잘 두었는데 지금 못 찾겠네요.

6. V-아/어 두다 Yordamchi fe'll,bo'lib qoldirmoq deb tarjima qilamiz,agar fe'l unliga tugasa아/두다, undoshga tugasa어 /두다.

내일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음식을 미리 준비해 두었어요.

추석 때 고향에 가려면 기차표를 미리 사 뒀어요.

## 연습 1 Mashq 1

1.

안경이 있다/ 찾다, 안 보이다

가: 안경이 어디에 있어요?

나: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1) 가: 저 사람 이름이 생각나요?

나:.....

2) 가: 시전이 좀 비싼 것 같은데 꼭 사야 해요?

나:.....

3) 가: 치과에 가기 싫은데 어떡하지요?

나:.....

4) 가: 한국어 듣기가 어때요?

나:.....

5) 가: 오늘 날씨가 영하 15도가 되는데 운동할 거예요?

나:.....

.

2.

저녁에 손님이 오다/ 방을 청소하다

가: 저녁에 손님이 오실 텐데 어떡하지요?

나: 걱정 마세요. 내가 미리 방을 청소해 둘 테니까요.

1) 기차표를 구해야 하다 / 표를 사다

2)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 / 음식을 준비하다

- 3) 그분을 만나다 / 연락하다
- 4) 영화표 사기가 어렵다 /
- 5) 파티에 맥주가 필요하다 /

3.

새 가방을 샀다 / 가방을 잃어버리다

가: 새 가방을 샀네요.

나: 네, 가방을 잃어버렸거든요.

- 1) 기분이 좋은 것 같다 / 수료식에서 상을 탔다
- 2) 시험을 잘 봤다 / \_\_\_\_\_
- 3) 피곤해 보이다 / \_\_\_\_\_
- 4) 꽃을 샀다 / \_\_\_\_\_
- 5) 오늘은 조금 늦게 왔다 / \_\_\_\_\_

4. 하숙집이 어때요? 아주머니는 좋습니다만 학교에서 너무 멀어요.

- 1) 한국 생활이 어떨습니까? /
- 2) 지하철이 어떨습니까? /
- 3) 그 영화가 재미있었어요? /
- 4) 한국 음식이 어때요? /

5) 서울 거리가 어떻습니까? /

## 연습 2 Mashq 2

1) 본문을 잘 읽고 대답하세요. Matni o'qib savollarga javob bering.

- 1) 안바르는 왜 그동안 옷을 찾아 가지 못했습니까?
- 2) 안바르는 언제 옷을 맡겼습니까?
- 3) 안바르가 맡긴 옷은 어떤 옷입니까?
- 4) 안바르는 왜 그 옷을 오늘까지 찾으려고 합니까?

2. 세탁소 주인과 손님이 되어 이야기 봅시다.

[손님]

나는 회사에서 돌아온 길에 세탁소에 가서 전에 맡긴 옷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검은 색이 조금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사 주신 그 양복은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인데, 내일 수료식에 입고 갈 옷입니다. 나는 화가 나서 세탁소로 갑니다.

[세탁소 주인]

아내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이 많이 아픈데 빨리 들어오라고 합니다. 아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세탁소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옷을 찾아간 손님이 다시 들어옵니다

3. 다음은 10 월 달에 쓴 돈입니다. 10 월에는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아서 월급이 100만 원이었지만, 11월 달에는 보너스가 없어서 70만 위밖에 안 됩니다. 11월 달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아낄 수 있을까요?

6월		7 월	
1) 하숙비	300000원		
2) 식비	70000원		
3) 교통비	45000원		
4) 책 값	50000원		
5) 옷 값	100000원		
6) 전기 요금	20000원		
7) 전화 요금	20000원		
8) 수도 요금	7000원		

9) 신문 값	9000원		
10) 여행	100000원		
11) 문화비	100000원		
12) 저금	29000원		
13) 기타	150000원		
합계	1000000원		

한국의 문화 (Koreyning madaniyati)

## ▶ 한국의 대표적인 어머니, 신사임당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머니' 하면 누구인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역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어머니가 누구냐고 물으면 대부분 '신사임당'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자녀 교육은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요즘에는 교육에 대한 정보를 여기저기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좋은 교육기관,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지요. 따라서 좋은 교육을 받는 일은 아주 어려웠고, 아무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대요. 특히 여자의 경우는 신분이 높아도 교육을 받고, 글을 아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신사임당은 이렇게 보수적인 조선시대에 살았던 여성이었고 어머니였습니다. 그 분은 열심히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뛰어난 작가이자 화가, 서예가로서 이름을 남겼습니다. 신사임당은 또한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자애(慈愛)와 관용(寬容)으로써 「사람다운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그 자녀 중 한 분이 한국 역사에서 대표적인 학자이신 '이이' 선생입니다. '이이' 선생이 유명하고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신사임당'이라는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어머니인 신사임당은 인자한 어머니로서, 또 어진 아내로서 한국 여성의 모범이 되어 오늘날에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 11과 같이 저녁아도 하는 게 어때?

자리나: 며칠 전에 태국에서 친한 친구가 왔는데 같이 저녁이라도 하는 게 어때?

루스탐: 좋아. 언제 만날까?

자리나: 친구가 일 주일 후에 떠나니까, 다음 화요일쯤이 좋겠어.

루스탐: 가만 있어 봐. 수첩 좀 볼게. 다음 주 화요일이면 16일이구나.

그 날은 안 되겠어. 중요한 모임이 있거든.

자리나: 그래? 그럼 수요일로 정해야겠다. 괜찮겠니?

루스탐: 17일 말이지? 좋아. 그 날은 아무 약속도 없어.

자리나: 그럼 지난 번에 나하고 만난 데서 수요일 6 시에 만나자.

그런데 이번엔 시간 좀 잘 지켜.

루스탐: 알았어, 걱정 마. 약속 시간 10분 전까지 틀림없이 갈게.

새 단어 -Yangi so'zlar

태국- shaxarning nomi Teguk	데 –joyga nisbatan ishlatadigan
친하다- ahil,inoq	qo'shimcha
가만 –boricha, shundoqligicha	지키다-saqlamoq
중요하다 –ma'noli,	틀림없이 -shubha
휴가-ta'til	계획 - reja
자르다 - kesmoq	아무것도 –hech narsa
교통편 –ko'rsatkich tayog'i	아무데도 –hech qaerda
모임 - majlis	아무도 -allakim
정하다 –o'tnatish	법-qonun
아무 hech kim	

## 문법과 표현-Grammatika va ifoda

1. N -(이)라도 ot +hech bo'lmasa,agar unliga tugasa-라도, undoshga tugasa-(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같이 차라도 한잔 할까요?

배가 고프니까 우선 빵이라도 먹읍시다

2. N와/과 친하다 ot+ do'stlashish kimdir bilan

자리나는 내 동생과 제일 친한 친구래요.

딜쇼드 씨와 친하세요? - 네, 친한 편이에요.

### 3. 가만 있어 보다 Jim turing.

가만 있어 봐. 저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아직 가지 말고 가만 있어 보세요. 저기 게이코 씨가 오고 있네요.

### 4. N-(이)구나 ot+rostdan ham, shunaqa ekan.

방이 엉망이구나!

너는 정말 좋은 친구구나!

### A-구나 sifat+rostdan ham, shunaqa ekan.

오늘은 정말 덥구나!

꽃이 정말 예쁘구나.

### V-는구나 fe'l+rostdan ham, shunaqa ekan.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정말 잘 먹는구나.

밤에 눈이 많이 내렸구나.

### 5. V-아/어야겠다 fe'l+qilish kerak

늦어서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겠어요.

## 6. 아무 N도 na+ ot

아무 문제도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주말엔 아무 약속도 안 하고 집에서 쉴 겁니다.

아무것도, 아무데도, 아무도 hech narsa, hech qaerda,

무엇을 샀어요? - 아무것도 안 샀어요.

방학에 여행 갈 거예요?- 아니오, 아무데도 안 갈 거예요.

## 7. AV -(으)ㄴ/는/(으)ㄹ 데 sifat/fe'l o'tgan ,hozirgi,kelasi, zamon qo'shimchalari qo'shib+ joyni bildiradi.

경치 좋은 데가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저는 학교에서 가까운 데에 살아서 편해요.

## 8. N을/를 지키다 ot+ni so'z ustida turmoq

그분은 언제나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편이에요.

수업 시간을 안 지키면 곤란해요.

## 9. 틀림없이-xatosiz,

언제 일을 끝낼 수 있어요? - 내일까지는 그 일을 틀림없이 마치겠어요.

폴 씨가 왜 아직 안 오지요? -틀림없이 올 거예요. 좀 더 기다려 봅시다.

## 연습 1 Namunaga qarab bajaring

1.

연필, 밀러 주다/볼펜

가: 연필 좀 빌려 주세요

나: 볼펜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가: 그러면 볼펜이라도 빌려 주세요

1) 돈, 빌리다/ 3000원

2) 좋은 사람, 소개하다/

3) 사과 주스, 주다/

4) 라면, 끓이다/

2.

가: 내일 약속이 있어요?

나: 아니오, 아무 약속도 없는데요

1) 가: 주말에 계획이 있어요?

나: 아니오,

2)가: 정민 씨, 무슨 걱정이 있어요? 힘들어 보이는데요.

나: 아니오,

3) 가: 어제 누구를 만났어요?

나: 아니오,

4) 가: 지난 방학에 여행 갔어요?

나: 아니오,

3.

버스, 안 오다/ 택시를 타다

가: 버스가 안 오는구나!

나: 그래, 택시를 타야겠어.

1) 짜개, 맵다 / 물을 좀 마시다

2) 머리, 길다 / 짧게 자르다

3) 길, 위험하다/ 운전을 조심하다

4) 눈, 내리다/

4.

주말에는 운동을 좀 해야겠어요

- 1) 이번 토요일에는
- 2) 다음 학기에는
- 3) 어머님 생신에는
- 4) 수료식이 끝나면

## 연습 2 Namunaga qarab bajaring

1. 본을 잘 읽고 대답하세요 Matnni o'qib savollarga javob bering.

- 1) 자리나는 왜 루스탐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까?
- 2) 왜 루스탐은 16일에 안 된다고 했 습니까?
- 3) 언제,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까?
- 4) 지난 번 약속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 5) 루스탐은 몇 시까지 약속한 곳으로 가겠대요?

3. '아무 N도, 아무것도, 아무데도'를 써서 대답하세요.

1) 가: 루스탐 씨,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아니에요,.....

2) 가: 내 가방 못 봤어요?

나: 아무리 찾아 봐도.....

3) 가: 지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

나: .....

4) 가: 점심 안 먹었으면 나랑 같이 식사하러 갈래요?

나: 혼자 가세요. 나는 지금 배가 아파서.....

5) 가: 내가 없는 동안 나한테 전화 온 것 없었어요?

나: .....

6) 가: 한국에서 어디에 가 보았어요?

나: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4. 다음 읽고 이번 달에 할 일과 여행 계획을 써 봅시다. Keyingi matnini o'qing va keyingi oyda bajaraladigan ish va sayyohat to'g'risida yozib bering.**

이번 달에 나는 회사에서 나흘 동안 휴가를 받았다. 나는 아직 한국에서 아무데도 가 본 곳이 없다. 그래서 이번 휴가에 여행을 가기로 했다.

<p>이달 안에 해야 할 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회사에서 일하기 (아침 9시-오후 6시)</li></ul>	<p>휴가 계획</p> <p>1. 언제:</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가 (4일 동안)</li> <li>• 새로 이사한 집 정리하기</li> <li>• 회사 친구들 초대해서 집들이 하기</li> <li>• 병원에 있는 친구 문병 가기</li> <li>• 머리 자르기</li> <li>• 한국 대학생과 말하기 연습하기</li> </ul> <p>(일 주일에 한 번)</p> <p>* 교향에서 온 친구와 저녁 식사하기</p> <p>* 친구 결혼식</p> <p>(이번 일요일, 4시, 강남호텔)</p>	<p>2. 누구와:</p> <p>3. 어디로:</p> <p>4. 교통편:</p> <p>5. 잘 곳:</p> <p>6. 필요한 물건</p> <p>7. 기타:</p>
---	--

## 속담과 관용어 (Maqola va ibora)

### 효(孝)와 속담

한국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이라 불려 왔다. 조선 시대부터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효(孝)를 모든 것의 근본으로 여기고 예의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찬문도 위아래가 있다'는 속담은 여기서 생겨났다. 이 말은 윗사람과 아랫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모든 일에서 윗사람이 먼저라는 뜻이다.

'신체발부수지부모 (身體髮膚受之父母)'라는 말은 신체의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이를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즉,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효의 기본이요, 이뜸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효를 실천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효행의 어려움을 표현한 속담도 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와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이 그 예이다. 여기서 '내리사랑'이란 부모의 자식 사랑을 뜻하고, '치사랑'은 자식의 부모 공경을 말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예는 드물다는 의미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은 말 그대로 비록 효자, 효녀라 할지라도 부모가 오랫동안 편찮으실 때 지치지 않고 효도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이 속담은 어떤 일이든 한 가지를 오래 하다 보면 자연히 성의가 부족해진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 12 과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요

“지금 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언전선 뒤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바라: 너무 말이 빨라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전선이 뭐지요?

자리나: 이 노란 선이 바로 안전선이에요. 열차에 가까이 가면 위험하니까  
그어 놓은 선이에요.

세바라: 아, 그렇군요. 빨리 탑시다.

자리나: 어, 저기 빈 자리가 있네요. 오늘은 운이 좋군요.

세바라: 가만 있어 보세요. 안내 방송이 또 나오는데요.

“다음 역은 사당, 사당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서울역, 상계 방향으로 가실 분은 4호선으로 갈아 타시기 바랍니다.”

자리나: 이번엔 잘 알아들었지요?

세바라: 네, 그런데 저는 을지로입구에서 내려야 돼요.

자리나: 그러면 시청을 지나자마자 내릴 준비를 하세요.

## 새 단어-Yangi so'zlar

안내 방송- telenamoish

물러서다 -qoching(qochib tur)

승차하다-ko'tarilish

상계- bekatning nomi

열차 - poyezd

가까이-yaqin, yonida

방면-bir tarafdin

올리다- yig'latmoq

승객 - yo'lovchi

완전히-hammasi bo'lib,umuman

긋다-chiziq o'tkazish.

알리다 bildirmoq

안전선 - Andijon yo'li

정차하다-to'xtamoq.

은-baxt

탑승구 -Tapsing tumani

거음 - qadam

## 문법과 표현-Grammatika va ifoda

### 1. N이/가 나오다 ot+ chiqishi,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왔다.

잘 들으세요.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슬퍼서 눈물이 나와요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 2. V-(으) ㄴ 후에 ...fe'l +o'tgan zamon + dan keyin

한국에 온 후에 한 번도 영화 구경을 못했어요.

철수는 수업이 끝난 후에 친구를 만나러 대학로에 갔어요.

나는 저녁을 먹은 후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봅니다.

### N 후에 ot+Keyin

이틀 후에 다시 오세요.

졸업 후에 외국에 가려고 해요.

\*한국에 오기 전에 무엇을 했어요?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해요.

### 3. V-기(를) 바라다. fe'l+ni tilamoq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이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 4. 운이 좋다(나쁘다). Omad kelmoq/ Omad ketishi

운이 좋으면 택시를 금방 잡을 수 있을 거야.

오늘은 운이 나쁜가 봐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 연습 1 Namunaga qarab bajaring

1.

카밀라 씨, 동대문시장에 가다/ 수업을 마치다

가: 카밀라 씨가 언제 동대문 시장에 갈 거래요?

나: 수업을 마친 후에 갈 거래요.

1)            다나카            씨,            고향으로            돌아가다/

.....

2)            딜쇼드            씨,            새            알을            시작하다

/.....

3) 올라 씨, 장학금을 신청하다  
/.....

4) 아저씨, 새 집으로 이사 가다  
/.....

5) 우미다 씨, 선생님과 의논하다/  
.....

2.

전화가 울리다/ 내가 방에 들어가다  
가: 언제 전화가 울렸어요?  
나: 내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전화가 울렸어요

- 1) 선생님께서 수업을 끝내다/ 종이 울리다
- 2) 아이가 울기 시작하다/.....
- 3) 사람들이 뛰기 시작하다/ .....
- 4) 아이들이 춤추다/ .....
- 5) 학생들이 웃기 시작하다 /.....

3.

“아저씨, 빨리 건강해지세요”.

⇒ 아저씨가 빨리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 1) “학생들, 수업 시간을 꼭 지키세요” ⇒
- 2) “영숙 씨, 잃어버린 물건을 빨리 찾으세요”⇒
- 3) “여러분, 교실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
- 4) “들쇼드 씨, 빨리 나오세요” ⇒
- 5) “ 자리나 씨,.....” ⇒

## 연습 2 Namunaga qarab bajaring

### 1. 본문을 읽고 대답하세요.

- 1)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2) 안전선이 무엇입니까?
- 3) 자리나는 왜 운이 좋다고 했습니까?
- 4) 세바라는 어디에서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까?

### 2. -‘자마자’를 써서 말해 봅시다.

- 1) 가: 집에 가면 무얼 제일 먼저 해요?

나: 나는 집에.....

- 2) 가: 여기서 제일 가까운 식당이 어디에 있지요?

나: 길 건너 경영대학 건물을.....왼쪽에 있어요.

3) 가: 다나카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어디예요?

나: 반포대학교를.....오른쪽에 보이는 아파트예요.

4) 가: 준석 씨가 어디 있지요?

나: 회사 일이..... 친구 만나러 갔어요.

5) 가: 그 호텔이 어디에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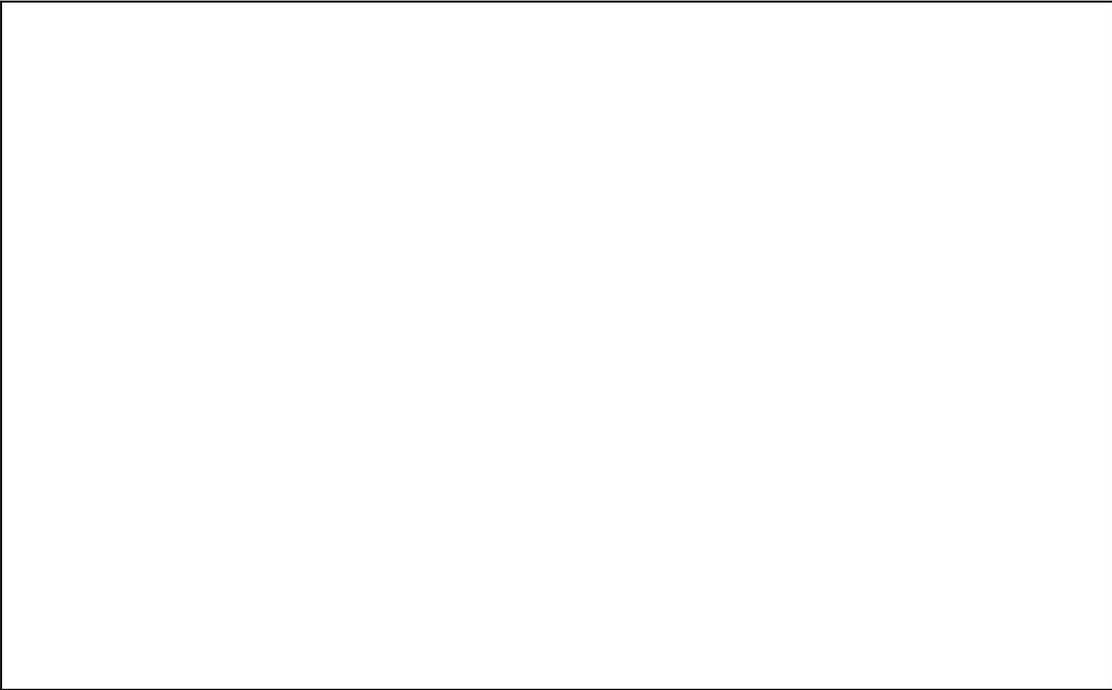
나: 삼성역에서 내려서 3번 출구로.....바로 있어요.

### 3. 교실에 붙일 안내문을 써 봅시다

<p><b>학생 여러분, 다음을 꼭 지킵시다</b></p> <p>* 교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p> <p>* .....</p> <p>* .....</p> <p>* .....</p> <p>* .....</p>
---

### 4. 아픈 친구에게 카드를 써 봅시다 Bemor do'stingizga xat yozing.

.....씨
--------



□ 한국의 문화 (Koreyaning ma'daniyati)



여러분, 혹시 '놀부 심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욕심이 많고, 심술궂은 사람의 마음을 '놀부 심보'라고 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놀부심보'라고 할까요? 다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옛날, 어떤 마을에 한 형제가 살았어요. 형의 이름은 놀부이고, 동생의 이름은 흥부였어요. 형 놀부는 욕심이 많고, 마음이 나빴지만 동생 흥부는 착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형 놀부는 동생 흥부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놀부는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쁜 짓을 했어요. 예를 들면, 스님이 쌀을 얻으러 오면 물을 뿌리고, 동네 아이가 울면 더 때렸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 흥부 가족을 내쫓고 모든 재산을 혼자서 가졌어요. 어느 날 흥부 가족들은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놀부 집으로 밥을 얻으러 갔어요. 그러나 놀부 아내는 밥은 안 주고 주걱으로 흥부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어요. 가난한 흥부네 집 처마 밑에는 제비집이 한 개 있었는데,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집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어요. 흥부는 이 제비의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 봄에 제비가 흥부네 집에 다시 돌아와 흥부에게 박씨 하나를 갖다주었어요. 흥부는 그 박씨를 마당에 심었고, 그 박씨는 무럭무럭 자라 커다랗게 되었어요. 흥부 부부가 그 박을 자르자 그 안에서 금과 보석과 쌀이 많이 나왔어요. 이 소문을 듣고 욕심 많은 놀부는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고 치료해 주었어요. 그 다음 해에 역시 그 제비는 다시 돌아와서 박씨 하나를 주었는데, 크게 자란 박을 잘라보니 온갖 도깨비들이 나와 모든 재산을 가져가고 놀부 가족을 때려 주었어요. 놀부가 불행하게 되자 흥부는 형을 찾아가 도와주고, 사이좋게 같이 살았답니다. 여러분 어때요? 놀부는 정말 나쁜 사람이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욕심 많고 심술궂은 사람의 마음을 '놀부 심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놀부 심보'를 가진 사람 없어요?

\*도깨비: 한국의 유령으로 머리에 뿔이 있고 요술 방망이를 가지고 다닌다.

13과 불고기를 만들려면 이런 재료가 필요해요.

지연 : 안바르 씨, 오늘은 약속한 대로 불고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안바르: 고마워요, 지연씨. 그런데 뭘 준비하면 되지요?

지연 : 불고기를 하려면 이런 재료가 필요해요.

(불고기 재료 4인분)

쇠고기 600그램

간장 5 큰 술가락

설탕 2 큰 술가락

파 3 큰 술가락

마늘 1 1/2 큰 술가락

깨속음 2 큰 술가락

참기름 1 큰 술가락

후추 조금

안바르 : 재료가 많이 필요하군요

지연 : 재료를 준비해 와서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

안바르 : 고기는 정육점에서 사면 되지요?

지연 : 그래요. 정육점 아주머니가 뭘 할 거냐고 하면 불고기를 만든다고

하세요. 그러면 등심을 줄 거예요.

안바르 : 꼭 등심을 사야 돼요?

지연 : 그럼요. 불고기를 만드는 데에는 등심이 제일 좋으니까요.

안바르 : 알았어요. 지연 씨 말대로 할게요.

### 불고기 만드는 법

1. 쇠고기를 등심으로 준비한다
2. 마늘을 다지고 파는 잘게 썬다.
3. 파, 마늘, 간장, 설탕, 깨소금, 참기름, 후추를 큰 그릇에 넣고 잘 섞는다.
4. 양념에 쇠고기를 넣고 잘 주무른다.
5. 쇠고기를 30분 이상 양념에 재운다.
6. 고기를 프라이팬에 굽는다.

\* 양파를 썰어서 넣으면 더 맛있다.

\* 술을 조금 넣어도 좋다.

\* 구운 고기를 상추와 깻잎과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

## 새 단어 Yangi so'zlar

재료 mahsulot		요리책 -kitobi	고춧가루-
쇠고기 mol go'shti		qora muruch	
설탕-shakar		쌀 -guruch	
참기름-kunjut yog'i		차례-tartib,ketma-ketlik	
인분-porsiya		잘게-mayda	
그램-gramm		재우다 -uxlatmoq	
파 -piyoz		썰다 -kesmoq	
호추 qora garimdori		프라이팬-tova	
간장-soyali sous	마늘-	섞다-qo'shmoq, aralashtirmoq	
sarimsoq piyoz	등심-laqim	굽다-qo'vurmoq,dimlamoq	
깨소금-sedana		설명서 – izoh kitobi	
정유점 go'sht do'koni		요리 - taom	
다지다 -maydalamoq		양 -qo'y	
주무르다-aralashtirish		전자레인지- mikroto'lqin	
상추- salat bargi		쌈장 -koreys	golubsi

## 문법과 표현 Grammatika va ifoda

### 1. V-(으)ㄴ/는 대로 qoror qilgandek

약속한 대로 한 달에 한 번 모입니다.

요리책에 쓰여 있는 대로 했어요.

### N 대로 ..ligicha

약속대로 오늘은 내가 한턱 낼게요.

사람들이 차례대로 버스에 탔습니다.

## 2. N을/를 하다 ..ni qilmoq

아이 생일이라 떡을 했으니 좀 잡쉬 보세요.

철수 씨가 어머니 대신 밥을 했습니다.

## 3. V-(으) 르 거냐고 하다 (묻다)..deb so'ramoq

선생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발표할 거냐고 제게 물어 보셨어요.

친구가 내게 점심에 뭘 먹을 거냐고 했어요.

## 4. V-는 데(에)는 NO이/가 좋다. Fe'l+...da, ega+... yaxshi

국수를 먹는 데에는 나무 젓가락이 좋아요,

빨리 가는 데는 지하철을 타는 게 제일 좋아요.

## V-는 데(에)는 NO이/가 필요하다 fe'l+...da, ega+...kerak

김치를 담그는 데에는 고춧가루가 꼭 필요해요.

외국어를 배우는 데는 좋은 사전이 필요해요.

## 5. N에 N을/를 넣다. Ega+..ga, ega+..ni solmoq

큰 그릇에 재료를 모두 넣으세요.

커피에 설탕을 넣지 말고 주세요.

## 6. N에[와/과] N을/를 섞다. ...bilan ni aralashtirmoq

까만 색과 하얀 색을 섞으면 회색이 됩니다.

여기에 고추장, 깨소금, 설탕, 그리고 참기름을 넣고 잘 섞으세요.

## 연습 1 Mashq1

1.

내일, 무엇, 하다/ 약속, 불고기를 하다

가: 내일 무엇을 할까요?

나: 약속대로 불고기를 합시다.

- 1) 토요일, 어디, 가다 /계획, .....
- 2) 무엇에 대해서, 글, 쓰다/ 자기 생각 .....
- 3) 언제, 어디, 만나다/ 마음 .....
- 4) 누가, 제일 먼저, 발표하다/ 차례 .....
- 5) 전자레인지, 어떻게, 사용하다/ 설명서 .....

2.

불고기, 만들다 /책에 쓰여 있다

가: 불고기는 어떻게 만들어요?

나: 책에 쓰여 있는 대로 만들면 돼요.

- 1) 비디오, 찍다 /내가 가르쳐 주다
- 2) 떡국, 끓이다/ .....
- 3) 한국 춤, 추다/ .....
- 4) 젓가락, 사용하다 / .....

3.

점심, 무엇, 시키다 / 비빔밥

점심에 무엇을 시킬 거냐고 해서 비빔밥을 먹겠다고 했어요.

- 1) 대학원, 무슨 전공, 하다/ .....
- 2) 이번 달, 생활비, 얼마 쓰다/ .....
- 3) 졸업 후, 무엇, 하다 /.....
- 4) 친구 생일, 무슨 선물, 사다/ .....
- 5) 차 안, 무슨 음악, 듣다/ .....

4.

김치, 담그다/ 고춧가루, 필요하다

가; 김치를 담그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나: 김치를 담그는 데는 고춧가루가 필요해요

- 1) 떡, 만들다 / ....., 필요하다
- 2) 듣기, 연습하다 /....., 좋다.

## 연습 2

1. 불고기 재료를 친구들과 같이 준비해 봅시다. Do'stingiz bilan mahsulotlarni olib Pulkogini tayyorlab ko'ring

[불고기 재료:\_\_\_\_\_인분]

필요한 재료	필요한 양	준비할 사람
1) 쇠고기		
2) 간장		
3) 설탕		
4) 파		
5) 마늘		
6) 깨소금		
7) 참기름		
8) 후추		
9) 양파		
10) 상추		
11) 깻잎		
12) 쌈장		
13) 쌀		
14)		
15)		

2. 불고기를 만들어 봅시다.



## 동물과 관련된 속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 속담에도 동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은 성공한 후에 자시의 어려웠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구래서 돈을 많이 번 어떤 사람이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을 비웃는다거나 하면 그 사람에게 이 속담을 쓸 수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힘센 사람들의 살등이나 싸움 때문에 힘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때 쓰는 말이다. 강대국끼리 전쟁을 하는데 그 일과 아무 관계도 없는 주변 국가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어떤 분야의 일이나 학문을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어도 오랫동안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식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학교에 오래 다니다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조금씩 배우는 게 생기는 법이다.

한편,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현실화하기 힘든 일을 가지고 쓸데없이 의논만 늘어 놓는 겨우를 가리킨다. 특히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때 이 속담을 쓴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은 전혀 그런 적 없다면 시치미를 떼거나 거짓말을 할 때 쓴다.

14과 불고기 맛은 양념에 달려 있어요.

지연 : 안바르 씨, 어제 불고기 참 맛있었어요.

재료를 어떻게 그렇게 잘 사 왔어요?

안바르: 정육점 아주머니한테 불고기를 만든다고 하니깐 특별히 좋은 걸로 주셨어요.

지연 : 그래서 고기가 연하고 그렇게 맛이 있었나 보군요.

안바르: 그런데 고기도 중요하지만 양념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연 : 맞아요. 불고기가 맛이 있고 없는 것은 양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양념을 잘 해야 돼요.

안바르: 양념하는 법을 잊어버렸는데 다시 한 번 가르쳐 주세요.

지연 : 큰 그릇에 간장과 설탕, 파, 마늘 다진 것, 깨소금, 참기름, 후추를 넣고 잘 섞어요. 그렇게 한 다음 거기에 쇠고기를 넣고 잘 주무르면 돼요. 이제 알겠죠?

안바르: 그런데 양념한 후 바로 구우면 맛이 없다고 했지요?

지연 : 네, 삼십 분쯤 재운 후에 센 불에 구워야 더 맛이 있어요.

안바르: 고마워요. 다음에는 나 혼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새 단어 Yangi so'zlar

달려 있다 ...dan qaram

bo'lmoq, bog'liq

성공하다 – omad

kelmoq

찌다-qaynatmoq

구이 -jarkop

특별히-ayniqsa

노력하다 -harakat

xavsala qilmoq

튀기다- qo'vurmoq

이십대 -20 asr

연하다-nozik,yumshoq

행복하다-baxtli bo'lmoq

삶다-pishirmoq,

qaynatoq

꾸미다 -bezatmoq

바로-aynan

알맞다- to'g'ri,mos

부치다- jo'natmoq

모양 -ko'rinish,shakli

세다- sanamoq

식용유-o'simlik yog'i

방법 usul

## 문법과 표현 Grammatika va ifoda

### 1. N에(게) 달려 있다 ...dan bog'liq bo'lmoq,qaram bo'lmoq

김치 맛은 양념에 달려 있어요.

성공은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AV -고 못 [안] AV-(은)N/는 것은 N[V-기]에 달려 있다 sifat/fe'l

성공하고 못하는 것은 노력하기에 달려 있다.

한국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연습하기에 달려 있다.

## 2. NOI/가 연하다 Yumshoq,mayin

고기가 연해서 맛이 있어요.

연한 고기로 불고기를 하는 게 좋아요.

## 3. AV -아/어야 AV sifat/fe'l+bo'lishi kerak

내일 날씨가 좋아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수 있을 텐데...

한국 음식은 양념이 알맞게 들어가야 맛이 있어요.





3) 불고기 양념에 어떤 재료가 들어갑니까?

4) 양념을 넣고 주무른 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2. 다음 음식 만드는 법을 보고 친구에게 가르쳐 주세요. Ovqat qilish usulini ko'ring va do'stingizga tshuntirib bering.

(김치 볶음밥)	만드는 법
재료 (4인분)	1) 김치를 잘게 썬다
김치 300 그램	2) 고기를 다진다
밥 3그릇	3)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넣고 먼저
쇠고기 100그램	고기를 볶는다
식용유 2 큰 술가락	4) ③에 김치를 넣고 함께 볶는다
참기름 1 큰 술가락	5) ④에 밥을 넣고 볶는다
	6) 잘 볶은 후 참기름을 넣는다

3. 식당을 하나 열려고 합니다. 손님이 많이 오는 식당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어떤 음식을 팔겠습니까?

2) 어떤 손님이 찾아오는 식당으로 만들겠습니까?

예) 이십대 젊은이, 회사원, 학생...

3) 식당 안을 어떻게 꾸미고 싶습니까?

가) 벽의 색깔

나) 식탁과 의자

다) 창문 모양

라).....

4) 식당을 어떤 곳에 지을 겁니까?

예) 학교 근처, 전철역 근처, 경치 좋은 곳...

5) 음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6) 문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은 언제로 하겠습니까?

7) '오늘의 특별 메뉴'는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8) 식당의 이름은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 □ 한국의 문화 (Koreyning madaniyati)

▶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설날에 떡국 먹어본 적 있지요?

떡국은 설날에 먹는 한국의 전통음식 중의 하나예요.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떡국의 국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소고기나 꿩고기로 국물을 만들었는데 특히 꿩고기로 만든 떡국이 제일 맛있었대요. 옛날에는 꿩이 흔해서 꿩고기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대요. 하지만 점점 꿩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꿩고기와 비슷한 맛이 나는 닭으로 떡국 국물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로 닭고기가 꿩고기를 대신해서 떡국을 끓이는 데에 이용되었지요.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어떤 물건이 꼭 필요한데 알맞은 것이 없어서 그와

비슷한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를 비유해서 말할 때 ‘꿩 대신 닭’이라고 합니다.

### 15과 부동산에다 물어 보세요.

안바르 : 지연 씨, 방을 구하려면 어디에다가 물어 봐야 해요?

지연 : 집을 옮기려고요? 기숙사가 편하고 좋지 않아요?

안바르 : 기숙사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생활비는 적게 드는데 불편한 게 많아요.

지연 : 그럼 부동산에다 물어 보세요.

안바르 : 어디에다 물어 보라고요?

지연 : ‘부동산’요. 부동산은 이사할 집을 소개해 주는 곳이에요.

안바르 : 그런데 이사하는 데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지연 : 글썸요. 짐이 많지 않으니까 십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 새 단어 Yangi so'zlar

부동산-ko'chmas mulk

짐-yuk

생활비-pulli xarajat

충분하다-yetarli bo'lmoq

비용 -sarf,xarajat

근-ildiz

부자 -boy

이삿짐 센터-ko'chirish markazi.

옮기다 -kuchirish

들다(돈이)-kerak bo'lmoq,zarur

bo'lmoq

## 문법과 표현-Grammatika va ifoda

### 1. N에다(가) ot+ichiga

내일 오후에 사무실에다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가방을 차에다가 두고 내렸어요.

2. N-(이)라고 해서 누구나[어디나, 무엇이냐, 언제나] AV -(으)ㄴ/는 것은  
아니다.

시장이라고 해서 다 싼 건 아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항상 추운 건 아니에요.

\*경치가 좋은 곳이라고 해서 왔어요.

편리한 것이라고 해서 샀어요.

3. AV -다[(으)라/자/냐]고요?

N-(이)라고요? O'zlashtirma gapning ,so'roq shakli,(nima dedingiz?)

시험이 어려웠어요. -시험이 어려웠다고요?-네, 시험이 어려웠다고요

지금 백화점에 가요.- 지금 백화점에 간다고요?-백화점에 간다고요.

영숙 씨를 만날 거예요.-누구를 만날 거라고요?-

영숙 씨를 만날 거라고요.

세 시까지 오세요.- 몇 시까지 오라고요?-세 시까지 오라고요.

불고기를 만듭시다.- 뭘 만들자고요?- 불고기를 만들자고요.

지금 2시예요.-몇 시라고요?- 2시라고요.

#### 4. 들다 -qarz olmoq, to'lamoq,

영호 씨는 한 학기에 학비가 얼마나 들어요?

요즘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죽겠어요.

V-는 데(에) N이/가 들다 fe'l+digan joyga to'lamoq

김치 담그는 데 양념이 많이 들어요

동남아로 일 주일 여행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 5. N-(이)면 충분하다 ot+agar +etarli

산꼭대기까지 1시간 반이면 충분해요.

여행하는 데 15만 원이면 충분할까요? - 좀 모자랄 것 같아요.

AV-(으)면 충분하다. Fe'l/sifat+agar /yetarli

쇠고기를 1kg만 사면 충분할 거예요.

저는 하루에 5시간 자면 충분해요.

#### 연습 1 Mashq 1

1.

한국 음식, 무엇, 맵다

가: 한국 음식은 무엇이나 다 매워요?

나: 그렇지 않아요. 한국 음식이라고 해서 다 매운 것은 아니에요.

- 1) 한국 여자, 누구, 김치를 담글 수 있다
- 2) 서울, 어디, 집 값이, 비싸다
- 3) 남대문시장, 무슨 물건, .....
- 4) 한국 사람, 누구, .....

2.

시험 보다, 이 책만 공부하다

가: 시험 보는데 이 책만 공부해도 괜찮을 까요?

나: 그럼. 이 책만 공부하면 충분해요.

- 1) 불고기 하려고 하다, 쇠고기 2근만 사다
- 2) 집을 옮기려고 하다, 차 한 대만 부르다
- 3) 호텔을 예약하다, 하루 전에만 연락하다
- 4) 내일 일찍 떠나야 하다,.....

3.

사무실로 올라가다/ 어디

가: 사무실로 올라가세요

나: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가: 사무실로 올라가라고요.

1) 내일 아침에 다시 오다 / 언제

2) 대화를 만들다 / 무엇

3) 35번 버스를 타다/ 몇 번

4) 이 선생님께 여쭙 보다 / 누구

## 연습 2 Mashq 2

1. 본문을 읽고 대답하세요. Matnni o'qing va tarjima qiling.

1) 안바르는 무엇을 구하려고 합니까?

2) 안바르는 왜 이사하려고 합니까?

3) 부동산은 무엇으로 하는 곳입니까?

4) 이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2. ‘-(이)라고요, -다고요, -자고요’를 써서 다음 대화를 해 봅시다.

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철수입니다.

나: 네?.....? 잘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가: .....영희 씨 지금 집에 있어요?

나: 아니오, 잠깐 밖에 나갔어요.

가: 네, 어디에.....?

나: 잠깐.....가게에 갔으니깐 곧 돌아올 거예요.

가: 아, 네. 가게에.....언제쯤 돌아와요?

나: 방금 나갔으니깐 10분쯤 있다가 돌아올 거예요.

가: 네? 몇 분쯤.....?

나:.....그 때 다시 전화해 주세요.

가: 그럼 말씀 좀 전해 주세요. 모레 아침 7시 20분에 '산촌역'에서  
만나자고요.

나: 네? 몇 시에.....?

가: 7시 20분요.

나: 아, 네. 7시20분요? 그런데 어디라고 하셨죠?

가:.....

나: 뭐라고요? '신천역'.....?

가: 아니오,.....

나: 아, 네. 그러니까 모레 아침 7시 20분에 '신촌역'이 아니라.....

가: 네, 맞아요. 꼭 좀 전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 속담과 관용어 (Maqola va ibora)

### 생활 속의 관용 표현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관용 표현에 재미있는 것들이 있다. 신체의 일부분을 빗대어 표현하는 ‘한턱 내다’, ‘눈 감아 주다’ 등은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관용 표현이다. 주위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한턱 내라고 한다. ‘한턱 내다’는 다른 사람에게 술이나 음식을 크게 대접한다는 뜻인데, 가끔 농담으로 두 턱을 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눈 감아 주다’는 남의 잘못을 못 본 체한다는 뜻으로 ‘봐 주다’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눈을 감다’가 ‘죽다’라는 의미가 있는 데 비해, ‘눈 감아 주다’는 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여 잘못을 못 본 체해 준다는 뜻으로 쓰인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거나 일의 결과가 놀랍고 엄청나서 어이가 없을 때 우리는 ‘기가 막히다’하는 표현을 쓴다. 예를 들어,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지각을 하게 됐을 때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어머니는 기가 막힐 것이다. 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을 때도 '기가 막히게 좋다'라는 말을 한다.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오지 않을 때는 '바랍을 맞았다'고 하며, 물건을 제값보다 비싸게 주고 샀을 때 '바가지를 썼다'라고 한다.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갔는데 평소 요금보다 훨씬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바가지 요금을 냈다'고 할 수 있다.

## 16과 지금 입고 있는 그 바지는 어때요?

세바라: 지연 씨, 서울대공원에 조카도 데리고 간다고 했지요?

지연 : 네, 언니가 좀 데리고 가 달라고 해서요.

세바라: 조카가 몇 살이에요?

지연 : 유치원에 다녀요. 그 애가 장난이 심해서 내가 고생 좀 할 것 같아요.

세바라: 걱정 마세요. 나는 아이들을 잘 보니까 조카는 내가 맡을 게요.

그런데 그 날은 바지를 입고 가는 게 좋겠지요?

지연 : 네. 그렇지 않아도 바지를 하나 살까 했는데, 오늘 가서 사야겠어요.

세바라: 지금 입고 있는 그 바지는 어때요?

지연 : 아, 이걸 좀 작아서 불편하거든요.

### 새 단어-Yangi so'zlar

대공원-Milliy bog'

청바지-shim(jinsili)

장난-erkalik

갈색-jigar rang

끼다 --xissa qo'shmoq

등산화-alpinist botinkasi

유치원-bog'cha

배낭 -ryukzak

매다-boylamoq

분홍색-pushti rang

장난꾸러기- to'polonchi

고무신-kalish

애-bola

메다-kiymoq

데리고 오다-yetaklab bormoq

목걸이-zanjir

성적 --natija

### 문법과 표현-Grammatika va ifoda

1. V-고 있다 fe'l +yapman hozirgi zamon davom fe'lli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새로 산 옷인가 봐요.

안경을 끼고 있는 분이 우리 선생님이예요.

## V-고 가다 [오다, 다니다] fe'l+ib bormoq (kelmoq)

산에 갈 때는 모자를 쓰고 가세요.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 편해요.

## 2. 데리고 가다[오다] olib ketish/olib borish(birga)

친구를 데리고 극장에 갈 거예요.

친구를 개를 데리고 공원에 온다고 했어요.

\*생일 파티에 제 동생을 데려 가도 괜찮아요?

할머니는 제가 모시고 올게요.

## 3. 장난이 심하다 -haddan oshmoq.

장난이 심한 아이를 장난꾸러기라고 해요.

내 동생은 장난이 심해서 걱정이예요.

\*차가 다니는 길에서 장난을 하면 위험합니다

장난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 4. 아이[집]을/를 보다 –bolani qaramoq,boqmoq

아이 보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내가 없는 동안 우리 집 좀 봐 주세요.

#### 5. 그렇지 않아도 –shunday emas

선생님, 시험 성적 좀 가르쳐 주세요.-그렇지 않아도 점수를 알려 주려고 했어요.

이번 방학에 제주도에 같이 갈까요?-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에 가 보고 싶었어요.

#### 6. V-(으)르 까 하다 fe'l+ nimanidir o'ylash

오늘은 책상을 정리할까 합니다.

커피 대신 우유를 마실까 해요.

## 연습 1 Mashq 1

1.

하숙집 아주머니/ 회색 치마, 검은 가방

가: 하숙집 아주머니가 누구세요?

나: 저기 회색 치마를 입고 검은 가방을 들고 있는 분이세요

1) 지연 씨 조카/ 청바지, 빨간 색 모자

2) 철수 씨 형님/ 갈색 등산화, 배낭

3) 최 선생님/ 연한 갈색 양복, 파란 색 우산

4) 영호 씨 어머니/ 분홍 색 한복, 흰 고무신

2.

이번 주/야구 구경, 가다

가: 이번 주말에 야구 구경을 가면 어때요?

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야구 구경 가려고 했어요.

1) 점심 / 비빔밥, 먹다

2) 여름 휴가/.....

3) 일요일/.....

4) 오늘 오후/.....

3.

점심, 무엇, 먹다/ 비빔밥, 맵다, 김밥 먹다

가: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 거예요?

나: 비빔밥은 너무 매우니까 김밥을 먹을까 해요.

- 1) 집들이 선물, 무엇, 사다/ 가루비누, 무겁다,.....
- 2) 파티, 무엇, 입고 가다/ 여러 나라 사람, 오다,.....
- 3) 이번 방학, 무엇, 하다/ 학비, 벌어야 하다,.....
- 4) 오늘 밤, 몇 시쯤, 집에 가다/ 일, 많다,.....

## 연습 2 Mashq 2

1. 본문을 잘 읽고 대답하세요. Matnni o'qing va savollarga javob bering.

- 1) 지연이는 누구와 같이 서울대공원에 가려고 합니까?
- 2) 대공원에 가면 누가 조카를 볼 겁니까?
- 3) 지연이는 바지가 있는데 왜 또 사려고 합니까?
- 4) 지연이의 조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2. 다음 동사에 맞는 옷이나 물건들을 써 보세요.

입다

신다

쓰다

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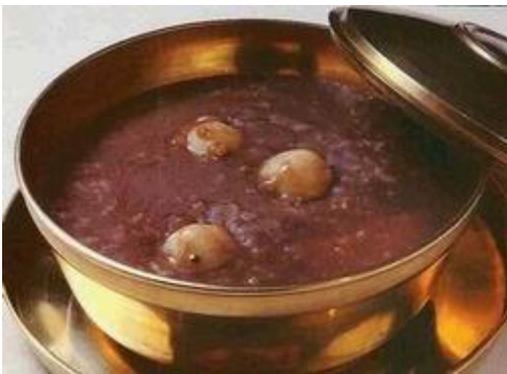
끼다

메다

매다

## □ 한국의 문화 (Koreyning madaniyati)

### ▶ '동지 팔죽'은 왜 먹어요?



'동지'는 양력 12월 22일경으로 일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한국은 동짓날이 되면 붉은 팥으로 죽을 끓여 그 속에 찹쌀로 '새알심'이라는 작고 동그란 떡을 만들어 넣어 먹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같은 어른들은 나쁜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로 팔죽국물을 벽이나 문에 뿌리기도 합니다. 또 옛날에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 날에도 팔죽을 끓여서 이웃 사람들과 나누어 먹기도 하고, 또 나쁜 귀신이 못들어오게 한다고 집 대문이나 벽에 뿌렸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동짓날을 '작은 설'이라 하여 '동지 팔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속담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동지가 되면 어머니께 팔죽을 끓여 달라고 해 보세요.

## 17과 조카는 뭘 먹이죠?

세바라 : 그거 새로 산 바지예요?

지연 : 네, 오늘 처음 입었는데 어때요?

세바라: 편해 보여요. 그런데 조카는 어디 있지요?

지연 : 언니가 데리고 이리 오기로 했어요.

세바라: 점심은 어떻게 할까요?

지연 : 대공원 안에서 사 먹을까 해요.

세바라: 그럼 조카는 뭘 먹이죠?

지연 : 그 애는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김밥이나 국수를 사 주면 될 거예요.

세바라: 기다리는 동안 제가 음료수를 좀 사 올게요.

저 가게에 있을 테니까 언니가 오시면 제게 알려 주세요.

지연 : 그러면 그 가방은 저에게 맡기세요.

## 새 단어-Yangi so'zlar

올리다- yig'latmoq

붙다-yopishmoq

살리다-qutqarmoq

죽이다 -o'ldirmoq

놀리다-ustidan kulmoq

걸리다-yuritmoq

웃기다- kuldirmoq

눅히다 -yotqizmoq

벗기다-yechintirmoq

얹히다 -o'tqizmoq

씻우다 -kiydirmoq

삼촌 -otaning ukalari

맞다(주사를)-ukol

olmoq

신기다-kiyintirmoq

(poyapzal)

익히다 -o'qitirmoq

돌리다-aylantirmoq

열쇠-kalit

감기다 -yopilmoq

깨우다 -uyg'atmoq

부탁하다 -iltimos

qilmoq

씻기다- yuvmoq

아무데나 -achqaerda

설거지-idish yuvishi

제우다 -uhlatmoq

아무 때나-hech qachon

말리다 - qurmoq

태우다- yondirmoq

환자-bemor

빚기다 -taramoq

## 문법과 표현-Grammatika va ifoda

1) N 을/를 V-이/히/리/기/우 - N이/가 V

철수가 영희를 올려요. (-영희가 올려요)

고양이가 쥐를 죽였어요. (-쥐가 죽었어요)

내가 친구를 웃겼어요. (친구가 웃었어요)

우리가 택시를 세웠어요. (택시가 섰어요)

지영이는 동생을 의자에 앉혔어요. (동생이 앉았어요)

**N에게 N을/를 이/히/리/기/우 -N 이/가 N을/를 V**

어머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여요. (-아이가 우유를 먹어요)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혀요. (학생들이 책을 읽어요)

철수가 부모님께 그 소식을 알렸어요. (부모님이 그 소식을 아셨어요)

영희는 월손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월손이 그 일을 맡았어요)

이	히	리	기	우
먹다-먹이다	읽다-읽히다	알다-알리다	벗다-벗기다	자다-재우다
죽다-죽이다	입다-입히다	올다-올리다	신다-신기다	서다-세우다
붙다-붙이다	앉다-앉히다	돌다-돌리다	웃다-웃기다	타다-태우다
끓다-끓이다	눅다-눅히다	살다-살리다	말다-말기다	쓰다-쓰우다
보다-보이다	맞다-맞히다	놀다-놀리다	감다-감기다	깨다-깨우다
		걷다-걸리다	씻다-씻기다	

**2. 아무 N(이)나**

우리 언니는 아무 옷이나 입어도 잘 어울려요.

여기서는 아무 버스나 다 서울역에 가요.

아무거나, 아무데나, 아무나

뭘 살까요? -아무거나 삽시다.

물건을 아무데나 두면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데리고 올까요?- 아무나 데리고 오세요

### 연습 1 Mashq1

1.

감기 환자, 약, 먹다/의사

감기 환자가 약을 먹었어요.

- 의사가 감기 환자에게 약을 먹였어요.

1) 조카, 스웨터, 입다/ 삼촌

2) 동생, 모자, 쓰다/ 언니

3) 아저씨, 열쇠, 맡다/ 나

4) 친구들, 소식, 알다/우리

2.

어린 아이들, 의자에 앉다/ 선생님

어린 아이들이 의자에 앉았어요.

-선생님 어린 아이들을 의자에 앉혔어요.

- 1) 사람들, 웃다 / 그 배우
- 2) 국, 끓다 / 아주머니
- 3) 동생, 울다 / 형
- 4) 손님, 택시에 타다 / 택시 기사
- 5) 아이, 머리를 감다/ 어머니
- 6) 친구, 깨다 /.....
- 7) 아기, 눕다 /.....
- 8) 환자, 살다 /.....

3.

날씨가 좋다, 어디 가다/ 아무데나

가: 날씨가 좋은데 어디 갈까요?

나: 가고 싶은 데 아무데나 가도 좋아요

- 1) 고기가 없다, 뭘 먹다 /.....
- 2) 선물을 사 주고 싶다, 뭘 사다 /.....
- 3) 수첩이 없다, 어디에 쓰다 /.....
- 4) 같이 영화 보고 싶다, 언제 보다/.....

## 연습 2 Mashq 2

1. 본문을 잘 읽고 대답하세요 Matnni o'qing va savollarga javob bering.

- 1) 지연이는 오늘 무엇을 입고 왔습니까?
- 2) 누가 조카를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까?
- 3) 점심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 4) 지연이의 언니를 기다리는 동안 세바라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2. ( )안의 동사를 사동형(-리/히/리/기/우)으로 써 넣으세요.

- 1) 그 선생님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학생들을.....요. (웃다)
- 2) 아이가 배가 고플 테니까 어서 뭘 좀.....도록 하세요. ( 먹다)
- 3) 저기 저 택시를.....세요. 빨리 병원으로 가갠데요. (서다)
- 4) 많이 걸어야 하니까 아이에게 편한 운동화를.....세요. (신다)

5) 글씨가 안 보이니까 앞에 있는 학생들을 의자에.....주세요. (앉다)

3. ( )안에 알맞게 쓰세요.

돌리다 말기다 알리다 보이다 깨우다

끓이다 입히다 벗기다 붙이다 신기다

- 1) 지난 주에 ( ) 양복이 다 되었는지 찾아봐 주세요.
- 2) 저는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서 어머니가 ( ) 주십니다.
- 3) 선생님 가족 사진을 좀 ( ) 주시겠어요?
- 4) 배가 고파요. 빨리 국수를 ( )시다.
- 5) 그분의 주소를 ( )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지를 썼거든요.
- 6) 어머니가 옷을 ( )려고 하니깐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 7) 방을 청소하고 세탁기를 ( )느라고 하루 종일 바빴어요.
- 8)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이들에게 따뜻한 옷을 ( )세요.
- 9) 나는 아이에게 양말과 신발을 ( ) 후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 10) 말하기 시험 볼 차례를 써서 교실 문 앞에 ( ) 놓으세요.

4. 다음 일기를 읽으면서 ( ) 속에 알맞은 동사를 사동형으로 써 넣으세요.

11월 13 일 화요일

아침에 언니가 부탁한 대로 4 살짜리 조타인 소담이를 봐 주러 언니 집에 갔다. 언니는 나에게 소담이응 오전에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하고 아침 일찍 나갔다.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설거지를 한 후,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소담이를 ( 1 ) 다. 그리고 욕실에 데리고 들어가 소담이의 잠옷을 ( 2 )고 머리도 ( 3 )고 몸도 잘 씻겼다. 그리고 다시 옷을 ( 4 )고 머리를 말리고 빗으로 빗겨 주었다.

그런 후 맛있는 된장찌개와 생선 구이 등으로 아침을 ( 5 )다. 아홉 시 반쯤 집을 나온 우리는 조금 걸었다. 비가 와서 나는 소담이에게 우산을 ( 6 )고 택시를 기다렸다.

택시가 한 대 오는 것을 보고 그 차를 ( 7 )다. 소담이를 택시에 ( 8 )고 병원으로 갔다.

의사는 우선 소담이를 의자에 ( 9 )고 나서 아이에게 주사를 ( 10 ). 주사를 맞고 소담이가 많이 울었기 때문에 내가 소담이를 ( 11 )것 같아서 미안했다.

언니 집에 돌아가자마자 소담이의 손을 깨끗이 ( 12 )고 과일을 주었다. 그리고 한 시간 정도 그림책을 읽어 주었다. 그림책을 보고 나서 소담이는 낮잠을 자겠다고 했다. 나는

소담이를 침대에 ( 13 )고 자장가를 부르면서 ( 14 )다. 그리고 나도 피곤해서 언니가 올 때까지 쉬었다.

나한테 아이를 ( 15 ) 언니는 일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뛰어온 모양이었다. 나는 언니랑

소담이랑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은 조카를 보느라고 하루가 다 갔다. 아이 보기가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정말 몰랐다.

## 속담과 관용어 (Maqola va ibora)

### 속담 속의 떡

‘금강산도 식후경’ 이라는 말이 있다. 뱃속이 든든해야 어떤 일이든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한국인에게는 물론 밥이 제일가는 음식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음식이 바로 떡이다.

떡은 매일 먹는 밥과는 달리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먹는다. 떡은 맛도 좋지만, 예전에는 농사가 잘 되었을 때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풍요를 상징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떡에 관련된 속담이 많은 것은 이렇게 떡이 한국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예쁘게 장식된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인다는 뜻으로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는 속담이 있고 아직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큰 기대를 갖는 사람에게 쓰는 말로 ‘떡 졸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가 있다.

또 우연히 얻은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경우에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속담을 쓴다. 예를 들어 좋은 술을 선물 받았을 때, 이것을 기회로 오랫동안 못 만난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에 쓸 수 있다.

결으로만 좋아하는 척한다는 의미의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도 있다. 이 밖에 ‘그림의 떡’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실제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리킬 때 쓴다. 또 제삼자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너무 깊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긋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라는 속담을 쓴다.

## 18과 표를 사 놓지 않으면 고향에 갈 생각도 못해요

안바르: 지연 씨, 추석에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사람들이 벌써 기차표를

예매하나 봐요.

지연 : 네, 지금 표를 놓지 않으면 고향에 내려갈 생각도 못해요.

안바르: 지연 씨는 이번 추석 때 고향에 안 가요?

지연 : 글썽요? 표 사기가 하도 힘들어서 올해는 갈까 말까 해요. 예매하려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거든요. 미리 표를 사 둘 걸 그랬어요.

안바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나요?

지연 : 네, 그래서 추석이나 설 때만 되면 서울이 텅 비어요.

안바르: 그래요? 그럼 가게도 문을 많이 닫겠네요.

지연 : 그래서 추석 연휴 전에 필요한 것을 미리 사 둘 생각이예요.

## 새 단어 Yangi so'zlar

추석- Koreys bayrami

예정 -taxmin

예매하다-oldindan sotish

열리다-ochilmoq

텅 (비다) umuman

국제 -xalqaro

연휴-bayramdagi dam olish kunlarning

영화제 -kinofestival

ketma-ketligi

남기다- qoldirmoq

긋다-och qolmoq

와이셔츠 -ko'ylak

빨다 –kir yuvish

## 문법과 표현 Grammatika va ifoda

### 1. V-(으)ㄹ 생각도 못하다 –Fe'l+ ib olishni o'yla olmadim

집이 너무 비싸서 살 생각도 못하겠어요.

일이 많아서 여행 갈 생각도 못합니다.

요즘은 바빠서 여자 친구 만날 생각도 못해요.

### 2. 하도 A/V -아서/어서 sifat/fe'l+shuning uchun

날씨가 하도 좋아서 공원에 갔다 왔어요.

시험 점수가 하도 나빠서 창피해요.

하도 생각을 해서 머리가 아파요.

어제 저녁을 하도 많이 먹어서 아침은 굶을 생각이예요.

### 3. V-(으)ㄹ 까말까 하다. Fe'l+ymi yoki meymi.

하숙집을 옮길까 말까 해요.

일요일에 집들이를 할까 말까 합니다.

오늘 이침에 빨래를 말까 했어요.

\*다음 달에는 하숙집을 옮길까 해요.

밥 먹고 나서 빨래를 할까 해요.

#### 4. V-(으)ㄴ 걸 (그랬다) fe'l+oldindan qilishim kerak edi.

갑자기 손님이 올 줄 알았으면 미리 청소를 해 놓을 걸 그랬어요.

이렇게 재미없을 줄 알았으면 다른 영화를 볼 걸 그랬어요.

아까 그 김밥을 먹지 말 걸 그랬어요.

그 사람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아 둘 걸.

#### 5. N 때만 되면 ot+agar+digan vaqt kelsa

저는 시험 때만 되면 떨려요.

이사 때만 되면 전세 값이 올라요.

#### V-(으)ㄴ 때만 되면 agar fe'l +digan vaqt kelsa

시험 볼 때만 되면 머리가 아파요.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만 되면 근처 길이 모두 막혀요.

## 6. V-(으)르생각 (계획, 예정) fe'l+bir narsani rejalashtirmoq

그 양복은 세탁소에 맡길 생각이예요.

일요일엔 설악산에 갈 계획이예요.

주말에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제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 연습 1 Mashq1

1.

표를 사 놓다/고향에 내려가다

가: 왜 표를 미리 사 놓으세요?

나: 표를 사 놓지 않으면 고향에 내려갈 생각도 못해요.

1) 아침 7시에 일어나다 /9시까지 학교에 가다

2) 돈을 남기다 /방학동안 여행 가다

3) 표를 예매해 놓다 /.....

4) 미리 공부하다 /.....

5) 친구가 도와주다 /.....

2.

지하철을 타다/택시 타다

가: 왜 지하철을 타세요?

나: 택시 타는 게 하도 힘들어서 지하철을 타요.

1) 식당에서 사 먹다 /밥을 해 먹다

2) 세탁소에 맡기다 /와이셔츠를 손을 빨다

3) 친구를 부르다 /조카를 혼자 보다

4) 친구에게 물어 보다 /사전을 찾다

5) 혼자 하숙방을 쓰다 /.....

3.

방학, 집에 가다/일이 많다

가: 방학에 집에 갈 생각이세요?

나: 글썄요. 하도 일이 많아서 갈까 말까 해요

1) 일요일, 비행기표를 예매하다 /.....

2) 오후, 은행에서 돈을 찾다 /.....

3) 올해, 집을 새로 짓다 /.....

4) 쉬는 시간, ..... /.....

5) 다음 학기, ..... /.....

4.

늦다/서두르다

가: 늦었지요?

나: 네, 서두를 걸 그랬어요.

1) 배가 고프다 /아침을 먹다

2) 돈이 모자라다 /아껴 쓰다

3) 치마가 불편하다 /바지를 입다

4) 가게 문이 닫히다 / .....

5) 표가 다 팔리다 / .....

## 연습 2 Mashq2

1. 본문을 잘 읽고 대답하세요. Matnni o'qing va savollarga javob bering.

1) 추석에 얼마나 남았습니까?

2) 왜 기차표를 미리 사야 합니까?

3) 지연 씨는 추석 때 고향에 가려고 합니까?

4) 추석에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갑니까?

5) 추석이나 설 때 서울은 어떻습니까?

2. “-(으)르 걸 그랬다”를 써서 다음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1) 가: 비가 갑자기 많이 오네!

나: .....

2) 가: 은행 문이 벌써 닫혔네!

나: .....

3) 가: 짜개가 너무 맵다.

나: .....

4) 가: 그 옷을 벌써 팔렸는데요, 손님.

나: .....

5) 가: 너한테서 전화가 와서 우리 아기가 갓어.

나: .....

6) 가: 비누가 하나도 없어.

나: .....

3. “-(으)ㄹ 생각 (계획, 예정)이다” 들 써서 묻고 대답해 봅시다.

가: 방학이 되면 무엇을 할 계획이세요?

나: .....

가: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할 생각이세요?

나: .....

한국의 문화 (Koreyaning madaniyati)

추석



한국에서 낫짜를 세는 방법은 양력과

음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명절들은 모두 음력으로 낫짜를 셉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인데, 다른 말로는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이날에는 **설날**처럼 다른 곳에서 살던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모입니다. 이렇게 모인 가족과 친척들은 추석날 아침에 햇과일과 햇곡식을 차려놓고 조상에게 인사를 드리는 ‘차례’를 지내고, 온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합니다.

추석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송편’이에요. 송편은 쌀가루를 반죽해서 속에 깨나 팥, 콩, 밤 등을 넣어 반달 모양으로 빚은 떡이에요. 이것을 솔잎 위에 놓고 찌서 찬물에 헹군 다음 참기름을 고루 바르면 완성됩니다. 추석 전날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만들어요. 특히 여자들은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모두들 정성을 다해 빚곤 하지요. 추석날 밤에 둥근 보름달이 뜨면 사람들은 달을 보며

소원을 빌어요. 추석은 한 해 동안 땀흘려 거둔 수확물을 나누며 감사하는 명절로, 1년 중 가장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 19과 집에서 송편이나 만들까 해요.

안바르: 모레가 추석인데 지연 씨는 뭐 할 거예요?

지연 : 고향에는 못 가게 되었으니 집에서 송편이나 만들까 해요. 안바르 씨, 한번 같이 만들어 볼래요?

안바르: 좋아요. 그런데 지연 씨는 송편을 만들 줄 알아요?

지연 :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가족끼리 밤 12시가 넘도록 만들었어요. 송편 만들어 본 지 벌써 5년이 넘었네요.

안바르: 어머, 그런데 잘 만들 수 있겠어요?

지연 : 그럼요. 전에는 송편을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쁜 딸을 낳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안바르: 그럼 지연 씨만 믿을게요.

전 요리에는 자신이 없어요.

## 새 단어 Yangi so'zlar

송편-guruchli qiymali non

어리다-yosh

-끼리 -oramizda

넘다 -oshib ketmoq,o'tib ketmoq

날다 -dunyoga keltirmoq

자신-o'z, xususiy

노인-qari,keksa

밤새도록- ertalabgacha.

소문 -mish-mish

독일 -Germaniya

동물원 -hayvonot bog'i

입원하다 -kasalxonaga yotmoq

독감 -gripp,tumov

헤어지다-ayrilish, ajralish

소포-pochta jo'natmasi

퇴원하다 -kasalxonadan chiqish

## 문법과 표현 Grammatika va ifoda

### 1. AV - 았/였을 때 Sifat/fe'l +ganda

지금보다 시간이 많았을 때 여행을 자주 했어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건강해 보였어요.

내가 도착했을 때는 벌써 비행기가 떠난 후였어요.

### 2. N -끼리 ot+oramizda

이번 등산은 학생들끼리 가려고 합니다.

아이들끼리 밖에 나가면 위험해요.

노인은 노인끼리 이야기할 때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 3. N 이/가 넘도록 (되도록, 지나도록) ot+oshib,ketdi:chegaradan o'tib ketdi.

밤 12시가 넘도록 남편이 안 들어왔어요.

세 달이 넘도록 편지가 안 오는군요.

약속 시간이 다 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아서 걱정했어요.

밤새도록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지요?

어제는 밤늦도록 술을 마셨어요.

### 4. N이/가 넘다 Ot+ oshmoq

벌써 아홉 시가 넘었네요!

열이 39도가 넘으면 병원에 가야 돼요.

만 원이 넘으면 사지 마.

### V - (으)ㄴ 지(가) N 이/가 넘다 nimga +ot+oshib ketdi.

이사한 지가 일 년이 넘었군요.

주소가 바뀐 지 두 달이 넘었는데요.

5. -다는 말 (얘기, 소식, 소문)을 듣다 O'zlashtirma gap bo'lib,eshitdim  
(yangilik,mish-mish,gap)deb tarjima qilinadi.

영숙 씨가 곧 결혼할 거라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칠수 시가 곧 독일로 유학 떠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번 겨울은 굉장히 추울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6. N에 자신이 있다 / 없다 ot+ o'z kuchiga ishonish, dadil/ishonmaslik

노래에는 정말 자신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듣고 있겠어요.

공부에는 자신이 없지만 운동에는 자신이 있어요.

V - 는 데(에)자신이있다/없다 Fe'l +o'z kuchiga ishonish, dadil/ishonmaslik

선미 씨가 운전하세요. 저는 길 찾는 데에 자신이 없거든요.

요리하는 데에는 자신이 없지만 설거지하는 데에는 자신이 있어요.

## 연습 1 Mashq1

1.

동물원, 가다/어리다

가: 동물원에 가 본 적이 있어요?

나: 네, 어렸을 때 가 봤어요.

1) 병원, 입원하다 / 다리를 다치다

2) 주사, 맞다 / 독감에 걸리다

3) 노래방, 가다 /

4) 송편, 만들다 /

5) 라면, 끓이다 /

2.

고향, 가지 못하다 / 떠나다, 10 년

가: 얼마 동안 고향에 가지 못했어요?

나: 떠난 지 10년이 넘도록 가지 못 했어요.

- 1) 양복, 찾아오지 않다 / 맡기다, 10일
- 2) 선생님, 못 만나다 / 졸업하다, 1년
- 3) 연락. 못하다 / 그 사람과 헤어지다, 1년
- 4) 영화, 못 보다 /
- 5) /

3.

집, 연락하다 / 두 달

가: 집에 연락한 지 얼마나 되었어요?

나: 연락한 지 두 달이 넘었어요.

- 1) 소포, 부치다 / 2주일
- 2) 월급, 오르다 / 6개월
- 3) 병원, 퇴원하다 /
- 4) 한국어, 배우다 /

5) /

4.

가: 영숙 씨가 언제 결혼한대요?

나: 졸업 후에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가: 할아버지 건강이 어떠시대요?

나: .....

2) 가: 이번 주말 날씨가 어떨대요?

나: .....

3) 가: 마이클 씨가 한국에 언지 돌아온대요?

나: .....

4) 가: 4급 공부가 어렵대요?

나: .....

5) 가: .....?

나: .....

**연습 2 Mashq2**

1. 본문을 잘 읽고 대답하세요. Matnni o'qing va savollarga javob bering.

- 1) 추석은 언제입니까?
- 2) 지연이는 추석 때 뭘 하려고 합니까?
- 3) 지연이는 언제 송편을 만들어 봤습니까?
- 4) 지연이는 송편을 잘 만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 5) 안바르는 음식을 잘 만든 편입니까?

2. “-았/었을 때” 를 넣어 묻고 대답하세요.

이름		
질문		
언제 제일 행복했어요?		
언제 제일 슬펐어요?		
어머니가 언제 제일 기뻐하셨어요?		
언제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언제 고향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언제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 속담과 관용어 (Maqola va ibora)

“그 사람 어때? 괜찮아?”

‘그런데 그 사람 왜 그렇게 짜?’

‘짜다’라는 말은 음식의 맛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맛을 나타내는 말이 때로는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사물의 속성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짜다’라는 표현은 음식의 간이 적당한 양보다 더 많이 들어갔을 때, 특히 소금맛이 강하게 날 때 ‘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가 그대로 전이되어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면 ‘짜다’라는 말은 인색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시험 점수에 대한 표현에서도 ‘점수가 왜 이렇게 짜?’라는 말은 점수가 후하지 않고 박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짠맛을 나타내는 표현에는 ‘짜다; 이외에도 ‘건건하다’, ‘간간하다’, ‘건건찹질하다’, ‘짹짹하다’ 등의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중

‘짹짹하다’는 ‘짜다’와는 달리 조금 짹 듯하지만 그 짹맛이 다소 좋게 느껴질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새로 시작한 일은 잘 돼 가? 수입은 어때?”

“ 짹짹해”.

‘수입이 짹짹하다’라는 말도 우선 맛에서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뜻을 쉽게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 이외에도 “싱거운 사람이야”, “달콤한 사랑”, “구수한 이야기”, “쫄쫄한 기분이야”, “손이 매워”. 등의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의 뜻을 알 것 같습니까? 맛이 주는 느낌을 안다면 이런 표현의 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 20 과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준석: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화났니?

지연: 너, 이럴 수가 있어? 40 분이나 늦게 온다는 게 말이 되니?

준석: 마침 빈 택시가 와서 그걸 탔어. 지하철을 탔어야 하는 데.....

지연: 너 그저께 미술관 갈 때도 늦게 왔잖아.

준석: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 하여튼 미안해.

지연: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돼?

준석: 너는 약속 시간 어긴 적 없니? 언젠가 비 오던 날, 공원 문 앞에서 한 시간이나 기다리게 했잖아. 기억 안 나?

지연: 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

준석: 그러니까 이제 화 풀어. 지금 영화 보기는 틀렸으니까, 저녁 먼저 먹고 마지막 회나 보자.

## 새단어 Yangi so'zlar

마침-vaqtida

마지막 – yakun,oxiri

그저께 -o'tgan kuni

회 -majlis

미술관 – tasviriy san'at

연구실 –tadqiqot markazi.

예상하다 –oldidan ko'rmoq

거짓말-yolg'on

어기다-buzmoq

글피-2 kundan so'ng

언젠가-qachondir

주차장 – avtomobil to'xtash joyi

기억 -xotira

돌려주다 –qaytarib bermoq

어쩔 수 없다 –iloj yo'q

참다 -chidamoq

이유 -sabab

싸우다 -urishmoq

화(를) 풀다 –jahil chiqmoq

## 문법과 표현-Grammatika va ifoda

### 1. V - 게 하다. Fe'l+majbur qilmoq.

어머니가 아이에게 과일을 사 오게 했어요.

형이 동생에게 방 청소를 하게 했다.

선생님께 그 학생에게 책을 읽게 하셨다.

언니가 조카에게 우유를 마시게 했다.

선생님은 내 친구를 연구실로 오게 하셨습니다.

날씨가 나쁘니까 아이들을 밖에 못 나가게 하세요.

나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아요.

### 2. 이 (그, 저) 량 수(가) 있다 ? Shunday qilsa bo'ladimi?

왜 한 시간이나 늦었어요? 정말 이럴 수 있어요?

그분이 그저께 돌아가셨다고요? 그럴 수가 있어요 ? 아주 건강하셨는데.

저 사람 좀 보세요. 저럴 수가 있어요?

### 3. AV – 다는 게 말이 되다 ?+sifat/fe'l o'zlashtirma gap shunaqa qilsa bo'ladimi?

연락도 없이 안 온다는 게 말이 돼요?

배 한 개가 이렇게 비싸다는 게 말이 되니?

사흘 동안 굶었다는 게 말이 되니까?

**N – (이)라는 게 말이 되다 ot+ shunaqa qilsa bo'ladimi?**

월급이 그렇게 조금이라는 게 말이 되니까?

옷 한 벌에 백만 원이라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말이 돼?

**4. AV – 았/었어야 하는데 (했는데)Sifat/fe'l +ish kerak edi, afsus**

어제 그 책을 샀어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었어야 하는데....

수료식에 꼭 참석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미안해요.

등산 갔을 때 날씨가 좋았어야 했는데.....

**5. AV – 잤아(요) Sifat/fe'l+ahir**

나가지 맙시다. 밖이 아주 춥잖아요.

우리 먼저 먹읍시다. 철수 씨는 항상 늦잖아요.

불고기는 조금만 시켜. 돈이 모자라잖아.

모래 떠나지요? – 아니요, 내가 글피에 떠난다고 했잖아요.

**6. V – 던 N fe'l+ gan +ot**

O'tgan zamonda harakat bir necha marta takrorlangan bo'lsa **던** bo'ladi.

이것은 내가 읽던 책인데 빌려 드릴게요.

아버지가 보시던 신문을 어디에다 두었어요?

내가 마시던 커피를 누가 버렸니?

여기 있던 책이 어디 갔지?

우리가 살던 동네는 아주 깨끗하고 조용했다.

많이 들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온다.

## 7. 어쩔 수(가) 없다 Iloj yo'q

다른 약속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군요. 못 가서 미안해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해 미안해요. 수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그 일을 못 끝내서 죄송합니다.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요.

## 8. AV – 기는 틀렸다) Sifat/fe'l+o'xshamaydi,chiqmaydi.

불고기가 맛있기는 틀렸어요. 양념이 모자라거든요.

오늘도 집에 일찍 가기는 틀렸어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시험 잘 보기는 틀렸습니다. 공부를 전혀 안 했거든요.

그 옷을 사기는 틀렸어. 돈이 너무 많이 모자라잖아.

1.

학생들, 무슨 책, 읽다/쉬운 소설책

가: 학생들에게 무슨 책을 읽게 했어요?

나: 쉬운 소설책을 읽게 했어요.

- 1) 아이, 무슨 옷, 입다 / 편하고 운동하기 좋은 옷
- 2) 환자, 무슨 음식, 못 먹다 / 맵고 짠 음식과 술
- 3) 그 사람, 어디, 차를 세우다 / 건물 옆 주차장
- 4) 동생, 무엇, 못하다 /
- 5) 학생, 무엇, 못하다 /

2.

내 생일, 잊어버리다/ 요즘 많이 바쁘다

가: 내 생일을 잊어버린다는 게 말이 돼요?

나: 요즘 많이 바쁘잖아요.

- 1) 낮 12 시가 넘도록, 자다 / 어제 새벽 3시까지 일하다
- 2) 10살짜리, 책을 아직도 못 읽다 / 외국에서 오래 살다
- 3) 1시간, 기다리게 하다 /
- 4) 약속, 안 지키다 /
- 5) /

3.

비, 많이 내리다 / 우산, 가져오다

가: 비가 많이 내리네요.

나: 우산을 가져왔어야 하는데.....

- 1) 은행 문, 벌써 닫히다 /
- 2) 극장표, 다 팔리다 /
- 3) 음식, 너무 짜다 /
- 4) 비빔밥, 너무 맵다 /
- 5) 아이, 열이 많이 나다 /

4.

가: 왜 산에 가세요?

나: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1) 가: 길이 왜 이렇게 막히지요?

나:

2) 가: 돈이 왜 조금밖에 안 남았지요?

나:

3) 가: 이 식당에는 왜 이러니 흥게 항상 손님이 많지요?

나:

4) 가: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해요?

나:

5) 가: 저 아이가 왜 저렇게 장난이 심하지요?

나:

5.

책상 위에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없어졌어요.

→ 책상 위에 책이 있던 그 책이 없어졌어요

1) 형이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을 내가 요즘 입어요.

→

2) 아버지가 신문을 읽으셨어요. 그 신문이 어디 있지요?

→

3) 내가 수박을 먹었어요. 그 수박을 냉장고에 넣어 두었어요.

→

4) 내가 잡지를 읽었어요. 그 잡지는 재미있어요.

→

5) 우리가 집에 살았어요. 그 집은 크고 깨끗했어요.

→

1. 본문을 잘 읽고 대답하세요. Matnni o'qing va javob bering.

- 1) 지연이는 왜 화가 났습니까?
- 2) 준석이가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지연이도 약속 시간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 4) 두 사람은 만나서 무엇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 5) 두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2. '-았/었어야 하다' 를 사용해서 다음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남: 미안해. 너를 화나게 해서....

여: 아니야. 내가 ..... (참다)

남: 아니야. 내가 그런 말을 하지 ..... (말다)

여: 아니야. 내가 일찍 ..... (오다)

남: 아니야. 내가 너의 사정 이야기를 잘 ..... (듣다)

여: 아니야. 내가 미리 전화를 ..... (하다)

남: 아니야. 내가너무 내 생각만 ..... (하지 말다)

여: 아니야. 내가 잘 못한 거야!

남: 아니야. 내가 잘 못한 거야!

여: 아니, 내가잘 못한 거라는데 왜 그러니? 정말 다시 한 번 싸워 볼까?

3. '-던' 을 써서 다음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1) 가: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가 새 거예요?

나: 아니요. 친구가 (                    ) 것을 내게 주었어요.

2) 가: 준영 씨, 새 셔츠와 새 바지를 입었네요! 아주 멋있는데요.

나: 새 것이 아니에요. 둘 다 (                    ) 거예요.

3) 가: 내가 (                    ) 맥주를 누가 버렸어요?

나: 버리지 않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내 배에 잘 넣어 두었거든요.

4) 가: 준영 씨, 무얼 찾고 있어요?

나: 내가 (                    ) 연필이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

5) 가: 이 노래를 알아요?

나: 그럼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항상 (                    )  
노래거든요.

6) 가: 죽도록 (                    ) 사람이 갑자기 말도 없이 떠나버렸대요.

나: 정말 안 됐군요.

4. 다음을 읽고 '-게 하다'를 사용해서 아래 대화를 만드세요.

내 딸은 일주일 전에 그 동안 만나던 남자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내 딸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방에서 슬픈 음악만 들으면 가끔 울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남자를 못 잊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 걱정이 돼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우리 딸이 요즘 남자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의사: 어두운 방에 혼자 있는 것은 안 좋아요. 방에서 .....(나오다)

그리고 밝은 방에서 ..... (쉬다)

어머니: 일주일 동안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의사: 마음이 아플 때는 특히 초콜릿과 같은 단 음식을 ..... (먹다)

단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음악도 슬픈 음악은

안 좋아요. 즐거운 음악을 ..... (듣다) 그리고 가족들이

도와서 빨리 그 남자를 ..... (잊다)

어머니: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이 좋을 까요?

의사 : 그럼요. 새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보통 딸이 그

사람을 싫어해서 안

만날 때는 그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을 ..... (만나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만날 수 없을 때는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 (만나다)

어머니: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한국의 문화 (Koreyaning madaniyati)

### ▶ 설



한국에서는 날짜를 셀 때 양력과 음력 두 가지 방법으로 셉니다. 물론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음력을 사용했지요. 따라서 전통적인 명절들은 모두 음력을 따릅니다. ‘설’은 새해의 첫 날을 기념하는 명절인데 물론 음력으로 ‘새해 첫 날’입니다. 이날에는

‘추석’처럼 다른 곳에서 살던 가족들이 모두 모이고, 가까운 친척들 역시 친척 중에 제일 어른이 계시는 집으로 모입니다. 그렇다 보니 매년 설날에는 한국 전체 인구의 2/3정도인 3천만 명 정도가 고향을 향해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모인 가족과 친척들은 설날 아침 ‘설빔’이라는 새 옷을 입고 조상들께 인사를 드리는 ‘차례’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은 부모님이나 친척 어른들께 새해인사인 ‘세배’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한국에서는 설이 지나야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날에는 ‘떡국’을 먹는데, ‘떡국을 먹는다’는 말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설날에는 집안 친척들이나 동네 이웃사람들과 윷놀이, 연날리기, 널뛰기 등의 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설빔: 설날에 입는 새 옷.

\*차례: 설날이나 추석 아침에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

\*세배: 설날에 어른들에게 절을 하는 것.

\*윷놀이: 막대기를 던져 나온 수만큼 말을 움직여 가장 먼저 말판에서 나가는사람이 이기는 놀이.

\*널뛰기: 여자 두 명이 나무판의 양쪽에 서서 번갈아 가며 뛰는 놀이.

## FOYDALANILGAN ADABIYOTLAR RO'YHATI

1. “한국어 – 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2000
2. “한국어 – 1”, 고려대학교 한국어 문화연수부 편, 2000
3. “한국어 – 1”, 연세대학교 한국어어학당 편, 2002
4. “한국어 활용 연습 – 1”, 연세대학교 한국어어학당 편, 2002
5. “말이 트이는 한국어 – 1”,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1998
6. “한국어 (초급)”, 국제교육진흥원, 2006
7. “한국어 문법 맞춤법 발음법”, 타슈켄트 국립동방학대학, 2006
8. “Синтаксические элемент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Алматы, Издательство КазГу, 1999
9. «Практиче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KOICA, 2000
10. “고국 소식”, 연합뉴스, 2008/3
11. “우 – 한 사전”, 타슈켄트 국립동방학대학, 2006
12. “옛센스 국어 사전”, 사전 전문 민중 서립, 2002

13. [www.minjungdic.go.kr](http://www.minjungdic.go.kr)

14. [www.topic.go.kr](http://www.topic.go.kr)

15. [www.pavv.co.kr](http://www.pavv.co.kr)

16. [www.munjin.com](http://www.munjin.com)

**MUALLIFLAR:**

**KIM FIL**

**KIM V., KIM E., SAYDAZIMOVA U., SHAKIROVA N.**

**KOREYS TILI -3**

**O'guy gullanma**

**Toshkent Davlat Sharqshunoslik Instituti O'quv – uslubiy Kengashning  
2010 yil 4 apreldagi 2- sonli Majlisi qarori bilan nashrga tasdiqlangan.**

**Отпечатано в типографии**

**Сеул, Р. Корея**

**Тираж**

